

석사학위논문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금 순

2006년 6월

1918년 제주 범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지도교수 김동전

한금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한금순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영삼 인

심사위원 진영애 인

심사위원 김동전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년 6월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Beobju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1918

HAN GEUM-SO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6. 6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II. 법정사의 창건과 성격	5
1. 불교계의 동향	5
2. 법정사의 성격	9
III.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	23
1.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	23
2.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	35
IV.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	46
1.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	46
2.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53
V.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와 주도 세력	59
1.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와 주도 세력	59
2.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주도세력의 행적	70
VI. 결 론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5

그림 목차

<그림 1> 법정사 위치	9
<그림 2> 법정사지 주변도	10
<그림 3> 법정사지 가람 배치도	11
<그림 4> 법정사 창건 전후 주요 승려들의 행적	19
<그림 5>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	50
<그림 6> 주도세력의 인척관계 형성	78

표 목차

<표 1> 법정사 주요 인물간 관계	17
<표 2>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수	43
<표 3> 법정사 항일운동 준비 과정	47
<표 4>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	55
<표 5> 주도세력 체포 현황	63
<표 6> 주도세력의 형량	64
<표 7> 주도세력의 가출옥 상황	67
<표 8> 주도세력의 실제 복역 기간	68
<표 9> 주도세력의 인물간 관계	79

I. 서론

제주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제주도에서 일본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승려 김연일·강창규·방동화 등이 인근 지역 주민 700여명¹⁾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는데 주도세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항일 의지를 결집해 낸 결과였다. 1919년 3·1운동보다 1년 앞선 시기에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은 사교도들의 민중 선동 사건으로 왜곡되어 '보천교의 난'으로 취급되어왔다. 1920년대의 관련 자료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독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38년 『매일신보』는 사교도의 민중 선동으로 폄하하였다.²⁾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시기로부터 멀어지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한 일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석익은 『탐라기년』 정축(丁丑:1937년) 조에서 '김연일의 변(金延日之變)'이 보천교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하였고³⁾ 이 시각을 이어 김태능이 '태을교의 난'⁴⁾으로 다룬 이후 '보천교의 난'으로 규정되었다.⁵⁾ 이와 같은 일제의 의도는 계속하여 『제주도지』 등 제주도 역사 관련 문헌에 반복 인용되며 오랫동안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주된 시각으로 자리 잡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

- 1)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주민을 '400여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여러 문헌 자료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를 '700여명'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III장에서 자세히 규명하였다.
- 2) 이에 관해서는 III장 2절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 3) 김석익, 「탐라기년」 「심재집」(II)(제주향교 행문회, 1990), 183~184쪽.
- 4) 김태능, 「태을교의 난」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세기문화사, 1982), 68~69쪽, 김태능 저·양성중 역,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동경, 신간사, 1988), 119~120쪽.
- 5) 근래 연구자들은 보천교가 1921년에 정해진 교명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선도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쳤고 그 결과 불교계 항일운동이라는 주장이 문히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에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와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가 발굴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은 비로소 재검토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항일운동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정구용 판결문』(1923,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의 발굴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모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구용 판결문』 발굴 이후 2004년 연구까지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운동 주체의 종교적 성향에 모아져 있다. 현재까지의 접근 시각은 불교계의 항일운동이라는 시각의 연구⁶⁾와 신흥종교의 항일운동이라는 연구,⁷⁾ 주민들의 자발적 항일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⁸⁾ 등 종교 성향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천교의 난이라고 폄하하였던 일제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빈약함 등이 그 원인이었다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업적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미비하다. 때문에 아직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정사 항일운동을 전후한 주도세력의 행적을 주목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법정사 주지로 거사를 총 지휘하였던 김연일, 좌대장 방동화와 우대장 강민수, 선봉대장 강창규, 모사(謀師) 박주석과 장임호, 선봉 좌익장 이종창, 중군대장 양남구, 후군대장 김삼만 등이다. 본 연구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전 준비과정부터 참여했고 거사 당일 주민을 이끌었던

- 6)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불교계의 항일운동이라는 성격을 규명해 낸 것은 김봉옥이다. 법정사에서 일어났고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승려들이 참여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김봉옥을 이어 임혜봉도 법정사 항일운동을 불교계의 항일운동으로 규정하였다.
- 7) 안후상은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 기록된 3명만을 승려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으로써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가 종교 성향에 대한 연구로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조성윤·김창민 등은 신흥종교의 항일운동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 8) 박찬식은 중문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불교도와 선도교도가 집단적으로 연결되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중문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항일운동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김연일·방동화·강창규·정구용·장임호·박주석·최태유 등 조직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법정사에 거주하였거나 김연일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다. 법정사 거주자 중에서 강민수는 우대장으로 김연일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자료의 부족과 유족이 없음으로 인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선봉좌익장 이종창, 중군대장 양남구, 후군대장 김삼만 등도 조직의 부서를 담당하였으나 조직의 하부에 해당되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우선 II장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의 근거지인 법정사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하도록 하겠다. 법정사 창건과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연유를 밝혀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법정사 창건 배경과 관계된 기본적 고찰이 미비하여 법정사 항일운동 성격을 규명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을 간과하였다. III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주도세력의 인물간 관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로써 주도세력의 사상적 성향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왜 주도세력에 주목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행적은 그 유족들의 구술 증언과 문헌 자료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다. IV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새로 발굴한 문서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미진했던 거사의 조직과 전개 과정에 대한 종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와 주도세력들의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의 행적을 밝히려 한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의 행적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승려 활동을 하면서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지속해갔던 주도세력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주도세력의 항일 독립운동의 의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로 법정사는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의 집합체였으며 운동을 주도한 법정사의 승려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승려활동과 항일활동을 지속하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새로운 문서의 발굴과 구술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본 연구자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김연일 가출옥 증표』(1923, 목포감옥 제주지소)와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1924, 대구교도소),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목포형무소) 등의 문서와 유족들의 구술 자료 및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경전류 등 유품들이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롭게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주도세력의 법정사 관련 전후 행적을 추적하여 주도세력 분석을 통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II. 법정사의 창건과 성격

1. 불교계의 동향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제주불교 상황을 먼저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주불교는 당시 유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 나아가 동학 등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민족종교 등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법정사는 이러한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제주불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해의 핵심이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종교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표현은 제주인의 신앙 정서를 적절하게 대변하는 표현이다. 근대 제주불교의 신앙 성격은 유교·도교·민간신앙 등이 혼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 성격의 근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고려 불교는 민간신앙의 양상을 끌어들이고 주도해 나갔던 반면 조선 불교는 억불 정책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민간신앙과 습합되는 형태를 보인다. 물론 제주불교의 신앙 형태는 고려 말 원 지배하의 밀교적⁹⁾ 영향과 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바도 적지 않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나가야 하는 섬 지역은 내륙지방에 비해 산천신이나 성황당신 등의 숭배가 성행하는 등 고난이 많은 만큼 신앙도 적극적이었던 특징이 있다. 음사(淫祀)를 배척하던 조선시대에도 이들 신앙의 형태는 국가의 예제로 수용되어 해난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묘(祠廟)를 지정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¹⁰⁾

9) 밀교는 현세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술이나 주문을 외워 재난을 없애고 행복을 구하는 것이 특징인 불교신앙 방편 중의 하나이다.

10)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신서원, 2000), 191~193쪽.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비친 제주인의 신앙태도는 독특한 양상이었다. 김정(『충암집(冲菴集)』,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그리고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 등에 제주인의 신앙 형태가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부처에게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¹¹⁾, “병이나 액을 막기 위해 뱀 귀신 등을 신으로 모시고 신당을 위한다”¹²⁾는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 양상이 얼마나 독특했는지 불교의 도리로 어리석은 풍속을 우선 고쳐 놓고 유교의 가르침인 인의를 알게 해야겠다고 하여 제주인의 신앙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교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유학자인 김정이 할 정도였다. 이는 18세기 초 이형상의 시기까지 계속된 제주도의 신앙 양상이었다. 이형상은 신당과 사찰은 철폐하고 삼읍의 향교를 보수하는 등의 활동으로 제주에서 유교의례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형상의 1년여의 재임기간이 끝나자 신당은 다시 복구되었다. 민간신앙과 불교와의 습합 양상은 조선시대의 지속적인 특징이었고 이형상과 같은 관리들의 노력으로 비추어볼 때 유교적인 틀 또한 사회의 근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중반 김정희의 9년간 제주도 유배생활은 제주불교에 큰 영향을 남겼다. 추사의 친구 초의 의순은 제주도에 내려와 산방굴사에서 6개월간 지내며 김정희에게 『밀다경』을 써서 세상에 전하게 하였다¹³⁾고 한다. 이원조 목사는 초의 의순을 기다려 시를 써달라고 부탁¹⁴⁾하기도 하였다. 추사의 제자 이한진은 초의는 물론 그의 제자인 운백 그리고 지월·환송 등의 승려들과도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한진은 불교적 취향이 드러나는 20여 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¹⁵⁾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제주도에 내려온 김정희와 초의를 비롯한 승려들이 관리나 유림들과 교분을 맺고 있음을

11) 김정, 『제주풍토록』, 『제주사자료총서』(I)(제주도, 1998) 24~25쪽.

12) 김정, 『도근천 수정사 중수권문』, 『국역 충암집』하(김종섭 역, 충암문간공종중(冲菴文簡公宗中), 1998), 335~340쪽.

13) “草衣修道于此庵 請金秋史書畫多經傳于世.” (고병오,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영인본, 대정역사문화연구회, 2006, 248~249쪽).

14) “濟牧李公源祚索詩遂次望京樓韻.” 장의순, 『초의선집』(경서원, 1985).

15) 이한진 저, 김영길 역, 『매계선생문집』(제주문화, 1998).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제주 유림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김병규를 비롯한 광양서재(靑齋) 유학자들의 불교경전 공부와 김윤식과 함께 하는 굴원 유생들의 불교 신앙 행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석운은 제주 광양서재에서 유학자인 김병규를 스승으로 하여 통감·사서·사략과 함께 ‘금강반야경’을 수학하였다.¹⁶⁾ 김병규는 유학자이면서도 불법(佛法)을 숭상하여 제자들에게 유교경전과 함께 불교경전을 가르쳤다. 이러한 김병규의 영향으로 김석운은 출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¹⁷⁾ 또한 김석운은 승려로 출가한 이후에도 서재에서 교사 활동을 하였다. 그의 문하생인 현계평 등 12명이 유림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김병규는 구한말 집의계(集義契)의 일원이었다. 집의계는 제주 각 지역의 유림 대표 12인으로 구성되어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 결사 항쟁을 맹약하였던 제주 유림의 비밀결사체이다. 김석운이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음은 스승 김병규의 영향 아래 있음을 말해준다. 김석운은 유학자이면서 불교 승려로 출가하고 법정사 창건을 돕기도 하면서 다시 동학의 유파에 경도되기도 하는¹⁸⁾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¹⁹⁾

- 16) 「김석운의 교적부」, 『교적부』(1947, 관음사교무소, 대한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14~215쪽, 재수록.
- 17) “雲龕金炳奎之門金公好向浮圖法公之後日歸依於道釋之門蓋自金公發端也.” 이를 해석하면 “운감 김병규(雲龕 金炳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김공(김병규를 지칭)은 부도법(浮圖法 : 佛法)을 좋아하고 숭상하였다. 공(김석운을 지칭)은 후에 불문(佛門)에 귀의하였는데, 대체로 김공(김병규를 지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재수록). “雲龕門下儒佛兼修少年之學其才亦秀訓學堂中文筆具全先生之風其道能博物授學移百庶變革” 이를 해석하면 “운감(雲龕) 문하에서 유불을 겸하여 닦으셨습니다. 소년시절의 학문은 그 재주 또한 뛰어났으며, 훈학하던 서당 안에서 문필(文筆)은 선생의 풍(風)을 완전히 갖추었고, 그 도(道)는 능히 사물에 대해 널리 알아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오이화, 『조사(弔詞)』, 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18) “既而悅普天教 普天教者乃東道之化身也 再轉於彌勒教 彌勒教又普天教之分形也.” 이를 해석하면 “이전부터 보천교를 좋아하였는데 보천교라는 것은 동학의 후신이다. 다시 미륵교로 바꾸었는데 미륵교 또한 보천교의 분파이다.”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재수록).

1898년 제주도로 유배되어 온 외무대신 김윤식의 활동에서도 제주 유생들의 불교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윤식은 제주의 유생들과 함께한 시를 쓰고 책을 읽는 궐원 모임에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등을 매달았다거나, 불교 경전인 『전등록』 등의 서적을 함께 보거나, 나한상을 새로 모시게 되어 향과 꽃을 올렸다는 등 유생들과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불교 신앙의 모습을 『속음청사』에 기록해 놓고 있다.²⁰⁾

이러한 유림들의 정서는 서당교육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도의 30여 개 서당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학부모와 훈장이 참석하여 연등을 만들어 달고 불을 켜다. 아울러 누구 등의 불이 잘 켜지나 경쟁도 하면서 연등 놀이를 하였다고 하며, 글짓기와 씨름대회를 하고, 떡과 술을 준비하여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였다.²¹⁾

서재에서 불교경전을 공부하였고 서당에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19세기 제주도의 종교 양태이다. 유교는 통치이념으로 조선을 유지하는 힘이었으나, 조선 말기 제주에서는 실제 많은 유림들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불교가 여전히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종교였음이 확인된다. 제주불교는 사찰의 쇠퇴라는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민간 신앙과 습합되는 한편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주불교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관음사와 법정사가 창건되었다. 근대 초 제주불교의 신앙 양태는 유교와 민간신앙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신흥 민족종교와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종교 성향에 대한 판단을 흥미하게 하였던 요인이자 법정사 항일운동의 특수한 배경인 것이다.

19) 강창규도 김석윤과 같은 사찰에서 같은 스승 밑으로 출가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불교적 동향에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기도 한다.

20)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제주문화원, 1996), 80쪽, 105쪽, 189쪽.

21)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제주도교육연구원,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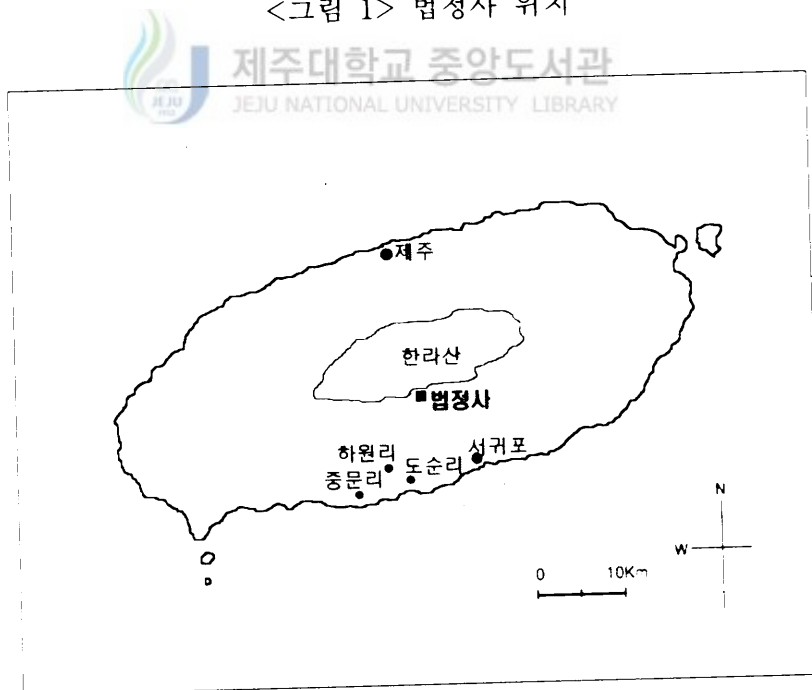
2. 법정사의 성격

법정사는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어떤 성격을 가진 사찰이었을까.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법정사 창건과 관련하여 법정사의 종교적 성격 규명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법정사 창건 정황과 관련된 승려들을 고찰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규명하려 한다. 그에 앞서 법정사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다.

1) 법정사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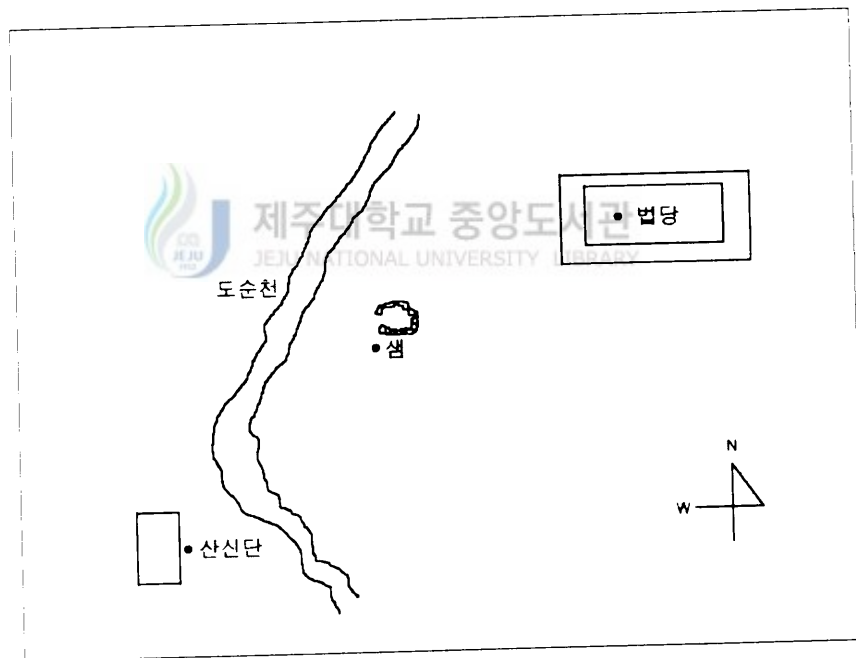
1918년의 법정사는 현재 지명으로 설명하자면 국립공원 한라산 내 서귀포 자연 휴양림 인근에 있었다.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 일대이다.

<그림 1> 법정사 위치



법정사는 거사 이후 불태워진 채 방치되었고 법정사 일대는 일체의 감시로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법정사의 규모를 기억하는 사람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 그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을 통해 보면 건물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법정사지에는 건물의 기단석과 건물의 기둥 흔적인 현무암 더미가 남아있고 지면으로부터 돌을 쌓아 만든 초석이 남아 있다. 법당의 서쪽 편에는 1918년 당시 식수였을 샘물이 아직도 솟아나고 있다. 산신단의 위치는 유족 방진주의 구술에 의해 표시한 것이다. 현장의 유적과 구술 증언을 토대로 하여 <그림 3>으로 그렸다. 법당은 남향이다.

<그림 3> 법정사지 가람 배치도



이상 법정사지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2) 법정사의 창건

1911년 승려 안봉려관은 법정사를 창건하였다. 창건에는 김석윤과 방동화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기존설은 법정사 항일운동 발발 당시 주지였던 김연일이 당연히 창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1908년 안봉려관이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제주불교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안봉려관은 제주도 각처에 사찰을 창건해나갔다. 법정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라산 남쪽 지역을 포교하기 위한 사찰로 지어졌다. 법정사 창건에 대한 기록은 『매일신보』, 『망형석성도인행록』, 『조사(弔詞)』, 『탐라기행』, 『원대정군지』 등이 있다.

다음의 『매일신보』 기사는 봉려관의 법정사 창건을 다루고 있다.

제주도 아미산 관음사「蛾眉山觀音寺」라는 절은 봉려관「蓬廬觀」이라는 여승이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창조한 절인 바, … 또 이왕에는 법정산 법돌사「法井山 法돌寺」²³⁾라는 절도 건설하였더라.²⁴⁾

김석윤의 아우 김석익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에는 김석윤이 봉려관을 도왔음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본디 세상을 초탈하는 불교를 좋아하였다. 대구에서 돌아온 후 여승 봉려관과 함께 색수수(寒水藪) : 신미탈)에 불사(佛舍)를 창건하였다. 남주(南州)의 사찰들은 이곳이 그 시초가 된다. 또 법정(法井)에 도량을 열었다. 모두 시사(施舍)가 있었다.²⁵⁾

23) 1918년 3월 2일과 1918년 3월 3일까지 2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3월 3일자에는 “定法山 法돌庵”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제주불교의 사찰건립 상황에 비추어 보건데 법정사를 일컫는 것이 확실하다.

24)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 『매일신보』(1918. 3. 2.).

25) “公雅好佛氏之超脫 自大邱歸還後 從僧尼蓬廬觀 創佛舍於寒水藪(신미탈) 南州寺創此其 濫觴也 又設道場於法井 皆有施舍.”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재수록).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의 『조사(弔詞)』에도 김석윤의 도움이 언급되었다.

봉려(蓬廬)가 절을 지을 때 공적을 이룬 자가 누구겠습니까. 표창하여 새길 적에도 공의 이름은 역시 뚜렷하였습니다.²⁶⁾

한편 이은상은 『탐라기행』에서 '관음사 사적기'를 보고 썼다면서 1911년 법정사 창건을 기록하였다.

이 관음사는 봉려관이라는 비구니가 창건한 것인데, ... 다시 다음 해(1909)에 마을에서 구재(鳩財)하여 초암(草庵) 수 칸을 이루었다가, 또 다시 다음 해(1910)에 영봉 화상과 안도월 처사 등이 육지에서 들어오면서 용화사의 불상과 각 탕화 등을 가지고 왔으므로 반가이 얻어 불안하고, 다음 해(1911) 9월에 법정암이란 것을 창건하였다.²⁷⁾

『원대정군지』에서는 “법정사는 법정악 동쪽 천변(川邊)에 있다. 여승 봉려관이 사찰을 세웠다”²⁸⁾고 하였다. 방동화의 도움도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²⁹⁾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은 불교 활동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불의 시대를 깨고 제주불교의 근대 시대를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관음사에 이은 법정사 창건으로 제주불교는 왕성한 활동을 예고한다. 관음사는 한라산 북쪽 지역을 대표하며 법정사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포교하기 위한 사찰이다. 법정사는 창건부터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

26) “公自遜世轉于仙佛 蓬廬創寺功績者誰 表彰之刻公諱亦著.” (오이화, 『조사(弔詞)』, 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27)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155~157쪽.

28) “法井寺 在法井岳東川邊天井地井之間今境 女僧蓬廬觀建寺.” (고병오, 『원대정군지』 영인본, 대정역사문화연구회, 2006, 249쪽).

29) “법정사 일대는 할아버지 방우필 때부터 살기 시작한 곳이다. 아버지는 봉려관 스님과 관음사도 지었다.”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의 구술 (서귀포시 중문동, 52세, 2004. 9. 24. 필자 채록).

3) 법정사의 성격

법정사의 성격을 먼저 법정사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다음으로 법정사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법정사 관련 주요 인물로는 강창규·김석윤·방동화를 들 수 있다. 강창규는 1872년 제주도 오등리 태생으로 1892년 전라북도 임실 죽림사에서 출가하여, 1893년 박만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³⁰⁾ 강창규는 김석윤보다 다섯 살 위이다. 1892년에 강창규가 20세에 전북 죽림사로 출가하였고, 2년 뒤 1894년 17세인 김석윤이 위봉사에서 역시 박만하의 제자로 출가하였다. 죽림사는 위봉사 말사였다. 위봉사는 1911년의 사찰령에 의해 전라북도 지방을 대표하는 본사로서 46개 사찰을 관할하고 있었고 제주도에도 포교소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두 사람은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겪었거나 당시 전라북도의 사회적 변동을 몸소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갑오농민전쟁은 농민들의 각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봉건제도의 모순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반대한 대규모 반제·반봉건투쟁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 구성은 주도세력들이 군대조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며, 김석윤의 제주의병항쟁 참여는 강창규가 선봉대장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지휘하는 것과 서로 맥이 닿아있다.

강창규와 김석윤의 인연은 출생지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창규는 오등리가 본적지이고 김석윤은 오라리로 2Km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는 “강창규는 한문서당에서 수학하였고 서적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라고 전한다. 김석윤은 제주 유림의 일원이었고 강창규도 한문을 수학하였다. 강창규의 출가에 이어 김석윤이 같은 위봉사로 출가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승려 이전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사상적으로도 동질성을 확인하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0) 『강창규 이력서』,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 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총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30쪽, 재수록.

김석윤은 1908년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 창건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1911년 법정사 창건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1909년 제주의병항쟁의 주역으로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인물이기도 하다. 제주의병항쟁은 최익현 등의 호남의진과 연합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며, 1894년 출가한 승려 김석윤은 장성의 의병장 기삼연 등과 연락하면서 무기를 제조 공급하고 의병을 규합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고사훈·이중심 등과 함께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는 기치 아래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는 왜적의 무리를 격퇴해 국권을 수호하자’는 내용의 격문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통고사(通告事)를 작성하였다. 이 의병활동으로 김석윤은 피체되어 내란죄로 유배형 10년을 선고받았다.³¹⁾ 김석윤은 관음사 서무와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제주의병항쟁 이후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망형석성도인행록』에 의하면 사상적으로 혐의를 받아 제주도를 떠나 통영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 수행하였고, 이후로도 세 번이나 수감되었다.³²⁾ 1930년대에 들어 귀향하였으나 항일 의지는 여전하였다. 1938년에 근대 제주불교의 최초 선원으로 선학원의 제주분원인 ‘제주선원 월정사’를 설립하였다.³³⁾ 선학원은 일제의 사찰 정책에 대항하여 일제의 통제를 벗어나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1921년 만들어졌다.³⁴⁾ 제주선원 월정사는 바로 이 선학원의 제주분원이다. 사찰을 창건하면 총독부에 설립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김석윤이 활동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다. 제주의병항쟁 이력에서

31)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재수록,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32)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교적부』(1947, 관음사 포교소, 한국불교대학교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14~215쪽, 328~330쪽, 재수록.

33) 『제주도 제주선원 낙성식 및 기념강연』 『불교시보』 제39호(1938. 10. 1.).

34) 일제는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국불교 전체를 31본산(本山)체제로 만들어 조선총독부가 관리 통제하였다. 선학원은 이 사찰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寺)나 암(庵)이라는 보편적 사찰의 명칭을 쓰지 않고 원(院)을 표방하였다. 한용운·백용성 등의 항일인사들이 참여하여, 식민지체제에서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활동하였다. 김광식,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 『한국근대불교사연구』(민족사, 1996), 95~146쪽 참고.

부터 일제의 사찰령을 거부하는 선학원 계열의 제주선원 설립 등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에서 김석윤의 항일의식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³⁵⁾ 김석윤이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면서 강창규 등은 관음사를 떠나 법정사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야 하였다.

방동화는 관음사에서 만난 강창규에게 감화를 받아 1913년 26세의 나이로 경상북도 경주 기림사로 출가하였다. 방동화는 안봉려관이 관음사와 법정사를 창건하던 당시부터 강창규·김석윤 등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출가하였을 뿐 아니라 항일 활동 또한 이 두 사람에게서 영향 받은 바이다. 방동화의 스승 또한 박만하이다.³⁶⁾ 강창규는 방동화를 자신의 스승인 박만하가 있는 기림사로 보내었던 것이다. 박만하는 관음사 초창기 활동에 공헌한 인물로 1914년 관음사 1대 주지 안도월이 안봉려관을 도와 절을 짓고 있을 때 제주도에 내려와 관음사 활동에 공을 쌓았다.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가 그 공적을 기리어 안봉려관과 안도월과 함께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한 인물이기도하다.³⁷⁾ 방동화는 기림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승려 김연일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인연이 된다. 박만하도 이무렵 관음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 살펴본 강창규·김석윤·방동화는 법정사 창건 이전부터 사상적 교류를 통해 같은 행보를 걸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와 법정사 창건에서 서로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항일 독립의 의지를 법정사에서 펼치게 되는 것이다. 법정사는 창건 당시부터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이 관련되어 있

-
- 35) 이외에도 김석윤의 항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제주도에서 1942년 조직이 탄로난 미륵교의 항일운동이 있었다. 미륵교는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고 장차 조선사회에 미륵사회가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며 항일운동을 하였다. 이때 검거된 사람 중 양봉진은 김석윤의 권유로 1927년 금산사에서 출가하였다. 김석윤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항일활동에 참여하는 있는 사실에서 김석윤의 항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64~165쪽.
- 36) 『방동화 승적첩』(1940, 방진주 소장).
- 37) 권태연 편역, 『한라산 관음사 조사전 창립 취지서』 『회명문집』(정동원, 1991), 진원일,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지』 제39집(1969. 7.), 진원일, 『안봉려관 스님』 『제주도지』 제42집(1969. 1.), 진원일, 『주장자 세 번 치니, 오이화 스님』 『제주도지』 제54집(1972. 5.).

있고 이들이 계속하여 사상적으로 같은 의식을 가진 승려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법정사의 성격을 이루었던 것이다.

법정사의 성격을 설명해 줄 주요 인물간의 관계를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1> 법정사 주요 인물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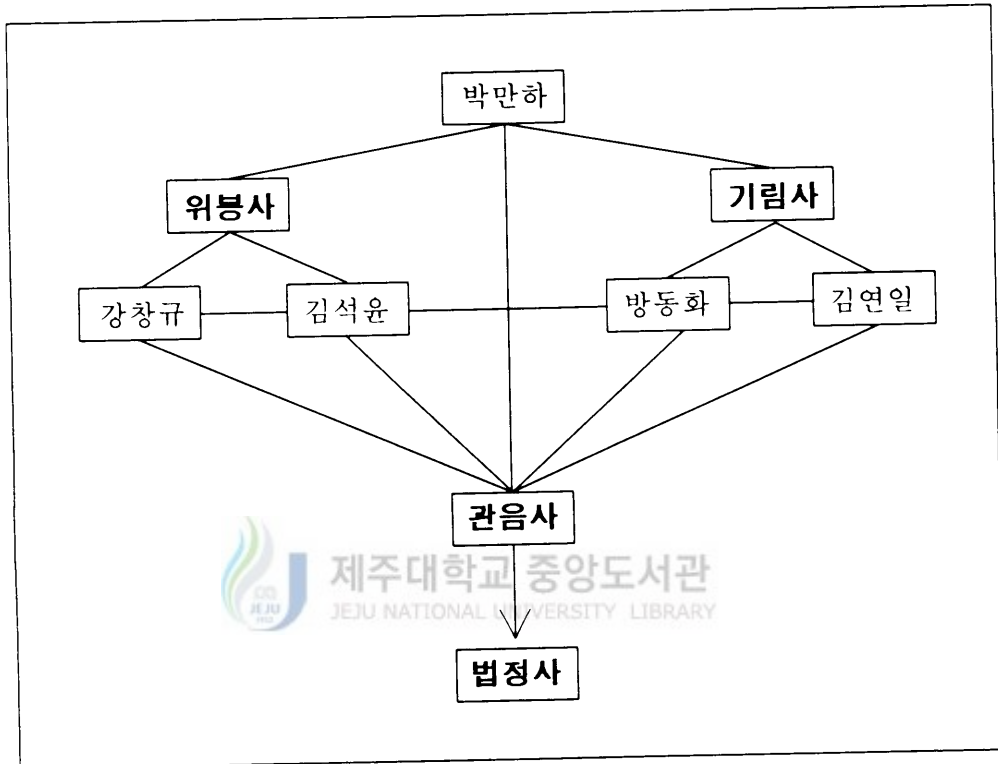
이 름	관 련 사 항
박만하	위봉사 제자 : 강창규 · 김석운
	기림사 제자 : 방동화
	1914년 관음사 활동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됨 : 창건주 안봉려관, 초대주지 안도월과 함께 봉안
강창규	1892년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13년경 관음사 활동
	방동화 출가 알선 : 기림사, 박만하의 제자로
김석운	1894년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08년 관음사 창건에 기여
	1909년 제주의병항쟁 의병장
	1911년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
	1911년 법정사 창건에 기여
방동화	1911년 법정사 창건에 기여
	1913년 관음사 활동 중 강창규의 도움으로 기림사에서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14년 김연일과 동행하여 제주도로 복귀
관음사	창건 : 1908년 안봉려관

	창건 도움 : 김석윤 · 방동화
	1908년 이후 김석윤 활동
	1913년 강창규 · 방동화 활동
	1914년 박만하 활동
	1914년 기림사 승려 김연일 관음사 이주
기림사	1913년 방동화 출가
	박만하 활동
	출신 승려 : 김연일 · 강민수 · 정구용 · 김인수 · 김용충 · 장임호
법정사	창건 : 1911년 안봉려관
	창건 도움 : 김석윤 · 방동화
	김석윤이 제주의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감시대상이 됨 → 주도세력들의 법정사 이주
	1914년 법정사 주지 : 김연일

박만하는 강창규 · 김석윤 · 방동화를 제자로 두고 있다. 강창규 · 김석윤 · 방동화 세 사람은 같은 스승을 찾아가 출가할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계였으며 출가 이후 항일활동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만하는 관음사 활동의 업적으로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된 인물이다. 이는 박만하의 제자들이 관음사 활동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세력으로 활동하게 되는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석윤은 출가 이후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면서 관음사의 항일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법정사로 옮겨가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자신도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 더 이상 법정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동화는 관음사에서 강창규 등의 영향을 받아 기림사로 출가하였고 기림사 승려였던 김연일은 강민수 · 정구용 · 김인수 · 김용충 · 장임호 등을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김연일은 독립운동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행을 결심하였

음을 다음 장에서 살펴계 될 것이다. <그림 4>는 박만하를 중심으로 한 강창규·김석윤·방동화의 관계와 김연일이 방동화와 기림사 인연으로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린 것이다.

<그림 4> 법정사 창건 전후 주요 승려들의 행적



박만하는 위봉사에 이어 기림사에서 활동하였다. 강창규·김석윤·방동화는 출가 이전부터 사상적 교류가 있던 사이이고, 김연일과 방동화의 기림사 인연은 김연일의 제주도 이주의 계기가 되며, 이들은 모두 관음사 활동 이후 법정사로 옮겨갔다. 법정사 관련 인물들은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법정사와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정사는 1911년 창건 이후 1918년 항일운동을 일으키기까지 8년여의 활동으로 지

역에서의 위상이 굳건하였다. 주지 김연일을 비롯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7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법정사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살펴보자.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서 지역주민들과 법정사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김연일은 법정사 신도들에게 평소에 일본통치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왔고, 사전 조직 또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였다. 다음 인용하는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의하면 1918년 4월 경(음력 3월경)부터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대정 7년 음력 3월경, 동사(同寺)에서 피고 방동화 및 동사(同寺)에 주거하던 피고 강민수, 정구용, 김인수, 김용충, 장임호에게 우 의도를 알리고, 그 동의를 얻었다.

아래에 제시한 『정구용 판결문』에는 7, 8월경(음력 6, 7월경)부터 불교도 및 농민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거사 20여일 전에는 각 부서를 정하고 무기 등을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대정 7년 음(陰) 6, 7월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었다. 폭행 협박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들을 도외로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법정사에 모여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 바, 동년 음력 8월 10일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고 칭하고 그 즉위식을 행하였고 모사(謀帥) 이하 선봉 중군 후군 각 장사의 부서를 정하고 기 곤봉 총기 등을 준비해 놓았다.

거사 6개월 전부터 구체적인 조직을 준비하였으며, 3개월 전부터는 공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준비 기간 동안에도 계획이 누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사가 신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추측하게 한다.³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도 김연일은 법정사에 거주한

이래로 교도들에게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고 하였다. 운동의 참여자들 중에는 거사 소식을 사전에 알고 법정사로 가서 참여하였음도 나타난다. 『정구용판결문』의 「고용석에 대한 원심 공판 경위서」에서는 고용석이 김봉화의 동생으로부터 거사 참여 권유를 받아들여 운동 발발 하루 전날 법정사로 향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김봉화는 선봉집사였으며 고용석은 강창규의 명을 받아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를 구타한 인물이다.

피고 고용석이 대정 7년 음력 9월 2일 김봉화의 동생으로부터 법정사로 동행할 것을 권유받아 동행했던 바, 많은 사람이 마당에 깃발을 세워 기도를 하고 절을 출발했다. 절을 출발할 때 김연일은 이번에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이러한 상황이었는에도 일제 경찰에 노출되지 않고 거사는 순조롭게 조직되었다. 이는 일반 참여자들의 법정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정사 인근 지역 주민들은 1901년의 이재수의 난 등을 겪었거나 알고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의 참여가 어떤 고초를 초래하는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700명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승려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장에서는 법정사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던 1918년 경 제주불교계는 관음사 창건 이후 승려들의 출가와 육지부 승려들의 관음사 활동 등으로 근대 시대의 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갔던 시기였다. 법정사는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이 한라산 남쪽 서귀포 지역의 포교를 위해 창건되었다. 법정사 창건에는 김석운과 방동화의 역

38) 김광식도 이점을 지적하였다.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참고.

할이 컸다. 법정사 관련 주요 인물인 강창규·김석윤·방동화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승려로 출가함은 물론 항일 독립의 의지도 함께 실천하는 사이로 중첩된 연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으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창건 당시부터의 법정사의 성격이 이후 항일 의식을 가진 승려들이 법정사로 모이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법정사는 6개월간의 거사 준비기간을 거치면서도 일제 경찰에 사전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음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의 이러한 성격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다.



III.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

1.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주도세력간의 관계와 이들의 항일의식을 통해 살펴보겠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제주도 출신인 강창규·방동화 그리고 이들과의 인연으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는 김연일 중심의 육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연일을 비롯한 정구용 등의 법정사 거주 승려들과 법정사에 거주하지 않지만 법정사 항일운동에 주도세력으로 참여하는 박주석·최태유 등의 인물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아울러 주도세력의 항일의식과 국권회복이라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에 대해 고찰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규명하려한다.

1) 주도세력간의 관계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김연일을 비롯한 강창규·방동화 등의 승려들이다. 김연일은 법정사 주지로 이들 인물 관계의 중심이 된다. 김연일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세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지휘자인 김연일은 경상북도 경주 기림사 승려였다. 김연일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은 박만하와 강창규 그리고 방동화 등과의 인간관계에 기인한다. 승려 박만하와 강창규·방동화와의 사제(師弟)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다. 김연일과 방동화는 같은 기림사 승려였다. 박만하가 제주도에 내려와 관음사에서 활동할 무렵 김연일도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다. 기림사에서의 방동화와 김연일의 친분관계는 김연일은 물론이고 기림사의 다른 승려들까지 제주도로 끌어들이는 매개가 되었다. 이

들의 관계는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의 구술에서도 확인된다.³⁹⁾

아버지(방동화)는 기림사로 출가를 했는데 기림사에서 모의해서 김연일 스님이 제주도로 들어왔다. 강창규 스님은 연설도 잘 했고 의형제를 맺은 사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산천단(관음사의 산내 암자인 소림사를 지칭 : 필자 주)에서 모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법정암으로 와서 백일기도한다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살았다.⁴⁰⁾

김연일은 제주도 관음사에 내려와 강창규 등과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음사 창건에 기여한 김석운이 제주의병항쟁에서의 항일 활동 이력으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관음사에서 법정사로 활동 무대를 옮겨야 되었다.

김연일은 1914년경부터 법정사에 거주하였다.⁴¹⁾ 김연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법정사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정사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도세력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겠다.

육지부에서 내려온 승려들은 김연일과 강민수·정구용·김인수·김용충·장임호 등 6명이다.⁴²⁾ 먼저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김연일·강민수·정구용·김인수·김용충은 경상북도 영일군 지역 사람들이며 장임호도 육지부에서 김연일과 함께 내려온 인물이다. 육지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법정사에 함께 거주하였다.⁴³⁾

39) 구술자료는 원 구술자료를 그대로를 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논문에 인용한 구술자료는 연구자의 정리를 거친 것임을 밝혀둔다. 이는 구술 증언의 특성상 인용한 구술문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 '~했다'로 정리하였다.

40)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의 구술 (서귀포시 중문동, 52세, 2004. 9. 24. 필자 채록).

41)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본)영인판(1934), 265쪽.

42)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43) 『형사 사건부』에 법정사를 주소로 하고 있는 사람 중 제주도 사람이 2명이다. 김삼만은 제주면 삼도리, 한운옥은 좌면 월평리 사람이다. 김삼만의 직업은 일가(日稼), 한운옥은 하남(下男)으로 기록되어 있다. 법정사 내에 거주하였고 나이로 봐서 55세인 김

법정사 주지 김연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 출신의 기림사 승려였다. 김연일의 조카인 김인수는 어릴 때부터 기림사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불상을 만들거나 탕화를 그리는 승려였다.⁴⁴⁾ 정구용은 경상북도 영일군 대보면이 출생지이고 본적은 영일군 도구리로 김연일과 동향 승려이다.⁴⁵⁾ 강민수는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출신의 승려이고⁴⁶⁾, 김용충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이다.⁴⁷⁾ 장임호는 법정사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육지부 인물 중 유일하게 경상북도 출신이 아니었다. 『수형인 명부』에 출생지가 ‘함북 길주군 조의면 사원평리(照宜面 社院坪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북5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길주군의 면(面)과 리(里) 명을 조사하였는데, 해방 전 길주군에 속했던 면에 조의면(照宜面 혹은 照宜面)·조선면(照宣面)은 없었으며, 사원평리(社院坪里) 혹은 두원평리(杜院坪里)라는 리 명도 확인할 수 없었다.⁴⁸⁾ 장임호는 김연일과 함께 내려온 기림사 승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설사 함경북도가 출생지라고 해도 기림사 승려라는 인연이 아니고서는 경상북도 사람들이며 기림사 승려들인 이들과 함께 법정사에 머무르게 될 인연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고령의 어른이면서 운동 당시에는 모사(謀師)의 직위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기림사 승려들의 집단이었던 법정사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형인 명부』의 출생지가 거짓 주소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임호는 기림사 승려라는 김연일과의 인연으로 함께 내려온 인물임이 분명하다. 장임호 외에도 박주석과 최태유의 주소도 거짓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거짓 주소를 일제 경찰에 말해야 했던 이유는 조금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박주석의 경우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전의 항일운동 경력을

삼만은 사찰의 불목하니, 16세인 한윤옥은 행자 등으로 볼 수 있다.

44) 김인수의 조카 김인구의 구술 (경상남도 포항시, 59세, 2004. 10. 23. 필자 채록).

45) 경상북도 경찰부의 앞 책, 266쪽.

46) 경상북도 경찰부의 앞 책, 266쪽.

47)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소장).

48) 글자를 잘못 판독하였을 우려에 대비하여, 조의면(照宜面 혹은 照宜面) 혹은 조선면(照宣面), 사원평리(社院坪里) 혹은 두원평리(杜院坪里)일 가능성을 가지고 비슷한 지명을 모두 조사하였다.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법정사 내에 거주하던 육지부 사람들은 김연일과 기림사라는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육지부에서 내려왔지만 법정사 내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주도세력으로서 활동한 박주석과 최태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자는 박주석과 최태유의 『수형인 명부』상의 출생지 주소 또한 존재하지 않는 면과 리 명임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자는 『수형인 명부』에 이들의 출생지로 기록된 각 해당 군청에서 1895년 이후의 지명, 혹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령’에 의한 일제 시대의 지명 혹은 오늘날의 지명에 이르기까지에서 유사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의 출생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지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주석은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다. 외손 이태수는 어머니와 금악리 동네 노인들로부터 박주석의 출신 및 이력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외할아버지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열네 살에 진주로 양자를 갔다. 그런데 양자 든 집에서 재산 때문에 양어머니와 양누나가 학대를 했다. 견디다 못해 밤에 집을 나섰다. 수 십리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나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법명이 명(明) 자 수(洙) 자이다. 할아버지는 양자 간 집에서 밤에 나올 때 족보만 메고서 나왔다고 하더라. 이걸 금악 동네 노인들에게 들었다. 동네에서도 하도 수상하니까, 보자 하니 배운 것도 유식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육지에 고향을 두고서 오셨냐고 자꾸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 외할머니는 한림읍 명월리 출신이다.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왔을 때는 40세가 다 되어서였고, 이때에야 할머니와 결혼하고 금악에 살았다.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남의 집에서 살았다.⁴⁹⁾

그러나 박주석은 『수형인 명부』에 ‘진도군 동면 상리’를 출생지로 기록하고 있다.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는 진도에까지 가서 이 마을을 찾으려

49)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필자 채록). 제주도에 1993년에 경기도로 이주.

했으나 '동면'도 '상리'도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도 진도군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도움으로 1873년 이후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령' 이후 현재까지 진도에 동면이라는 면도 상리라고 하는 리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도군 동면 상리는 허구의 주소이다. 박주석은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와 『박주석 민적부』에는 구우면 금악리 고운주 집의 동거인으로 나와 있다. 유족 이태수는 박주석은 안동에서의 의병 활동 전력 때문에 제주도로 도피해 왔으며, 거짓 주소를 말한 연유도 이러한 전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고, 의병활동 행적과 연관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옥사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할아버지는 안동에서 진주로 양자를 갔는데, 양모의 학대로 족보를 메고 밤에 집을 나섰다. 그길로 스님을 만나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이명 명수는 범명이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삼수 삼봉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명수하고 태수가 삼수 중 둘이다. 어머니는 문태수 청년이 할아버지 제자라고 했다. 문태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며칠간 밥도 안 드시고 눈물 흘리면서 누워계셨다고 한다. 내가 찾아보니 문태수 청년은 호남의병대장 문태수이다. 문태수는 1904년에 금강산 박처사에게 병서를 받았다. 문태수는 원래 이름이 태서이다. 의병활동을 하면서 태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박처사는 『공훈록』에 안동에서 의병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의 이명 박처사가 바로 문태수 장군에게 병서를 건네준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한 이분이라고 생각한다.⁵⁰⁾

이태수는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안동 사람 '박처사'⁵¹⁾가 『수형인 명부』의 박주석의 이명으로 기록된 '박처사'와 일치하고 있고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문태수 장군과의 연관성 등으로 안동의 박처사가 박주석일 것으로

50)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필자 채록).

51) "박처사 : 1908년 국권회복을 위해 경북 안동에서 의병 300명을 인솔하여 활동한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9권 : '90·'91 건국훈장서훈자(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1991), 635쪽.

확신하고 있다. 문태수는 호남의병단의 의병대장으로 금강산에서 박처사에게 병서를 받아 의병활동을 한 인물이다.⁵²⁾ 박주석은 박명수 또는 박처사라는 이름을 남기고 있는데 유족 이태수는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한 박처사가 박주석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옥사한 이유도 그 행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새로운 문서의 발굴로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박주석을 선도교 수령으로 표현하였다. 이 자료는 2002년 『정구용 판결문』 발굴 이전까지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체적 개요를 기록한 자료로서 비교대상이 없는 유일한 자료였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신뢰받아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 『매일신보』 기사와 1923년의 『정구용 판결문』은 물론 본 연구자가 발굴한 1928년의 『강장규 가출옥 관계서류』 등 어디에도 박주석을 선도교 수령으로 표현한 자료는 없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자료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934년의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만 유독 등장한다. 또한 수령의 지위였다면 박주석 중심의 선도교도들의 조직적 참여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박찬식은 1922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당시 제주도의 보천교도가 2만여 명이었으므로 1918년에는 선도교가 제주도 전 지역에 상당히 퍼져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김연일과 박명수의 만남은 불교도와 선도교도의 집단적인 연결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⁵³⁾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박찬식은 또한 서귀·안덕·한림 인근 지역과 제주면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참여자가 선도교단의 조직적 노력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추론이다. 『형사 사건부』 66명의 주소

52) 문태서는 태수(秦洙)라고도 하며, 1904년 2월 안의군 서상면 이제두의 소개로 금강산에 은거하고 있는 박처사를 찾아갔다. 박처사는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유격 전술과 총포 사격술을 가르쳤고 그는 약 2년 동안 열심히 수련하였다.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문태서 의병대 : 호남의병단」 『전북의병사』 하(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2), 375~376쪽.

53)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통권99호(제주도, 1996. 1.), 85쪽.

지를 분석해 보면 좌면 참여자가 57명으로 86%를 차지하고 그 외 지역은 중면의 3명, 우면 2명, 구우면 2명, 제주면 2명이다. 승려였던 강창규와 최태유 그리고 강창규의 동생 강수오를 제외하면 66명 중 6명만이 다른 지역 참여자이다. 이러한 분포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선도교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다는 선도교단의 조직적 참여 또한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이라고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박주석이 안동 출신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김연일과는 경상북도에서부터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경상도에서부터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음으로 최태유의 출생지 주소도 거짓이다. 최태유는 『수형인 명부』에 '나주군 남면 사상리'를 출생지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나주군의 도움을 받아 남면 사상리를 추적하였으나 '남면'도 '사상리'도 없었다. 최태유는 당시 거주지가 우면 서흥리로 법정사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사에 참여하여 선봉집사 역할을 하였으며 4년형을 받았다. 선봉집사라는 직위에서 강창규를 도와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주소지인 제주도 우면 서흥리에서 참여한 사람이 최태유 혼자뿐이라는 점, 육지부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1937년 위봉사 제주도 성산포 포교당을 창건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강창규와 위봉사에서 인연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장임호·박주석·최태유 세 명이 거짓 주소를 말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 다른 항일운동 혹은 의병활동과의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김연일이 갑오농민전쟁이나 의병활동을 겪었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도 법정사 항일운동 이전의 항일운동의 맥락 안에서 서로 연결된 인물

54) 「성산포교당 불봉식」 『불교시보』 제25호(1937. 8. 1.),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18쪽, 재수록.

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연일은 강창규와 방동화와 의 인연으로 제주도에 내려왔고, 육지부 인물인 법정사 거주 승려들을 비롯한 박주석과 최태유 등의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인물간 관계의 범주 안에 있다.

2) 주도 세력의 항일 의식

김연일의 항일운동은 기림사에서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기림사 승려들의 제주도 행은 항일운동에 의지가 결집된 결과였다. 김연일은 독립운동의 바람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강창규는 제주의병항쟁의 주역이었던 김석윤과 같은 위봉사로 출가하는 등의 교류를 통해 시대인식과 항일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관음사에서 함께 활동하던 방동화에게 이어졌다. 김연일은 일시적인 억압에 항의하는 거사를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로 왔다는 점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정사 활동 이전부터 항일의식을 공유하였던 강창규와 방동화는 제주도에서부터 독립운동의 기운을 끌어가겠다는 목적에 동의한 김연일로 대표되는 기림사 승려들을 제주도로 끌어들이게 된다.

강창규와 방동화는 당시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1909년 제주의병항쟁의 주역이었던 김석윤과 함께 모두 박만하의 제자들이다. 독립운동 의지를 갖고 있던 동료이기도 하였다. 강창규는 1892년 전라북도 임실 죽림사에서 출가하였고 강창규를 따라 2년 늦게 1894년 출가한 김석윤은 죽림사의 본사인 위봉사에서 출가하였다. 강창규와 김석윤은 전라도 지역에서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창규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선봉대장으로 앞장서는 것은 전라북도 죽림사 생활에서

체험했던 갑오농민전쟁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석윤이 제주 의병항쟁의 주역이 되는 것도 스승인 김병규의 영향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에서 갑오농민전쟁의 큰 사회적 흐름을 체험하고 온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강창규·김석윤과 함께 관음사에서 활동하였던 방동화가 이들과 같은 행보를 이어갔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연일도 법정사 활동 이전부터 항일 독립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48세로서 독립운동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라면 청년기에 갑오농민전쟁 혹은 의병활동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유족 김갑출의 구술에서도 갑오농민전쟁과 관련이 있는 점이 발견된다.

내가 장손이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유품이라면서 준 것이 세 개다. 태극기하고 서른 세 명의 이름이 혈서로 적힌 것, 그리고 가출옥 증표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중에 서른세 명의 이름이 동그렇게 적혀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릴 때인데도 이상하다 삼일운동도 33인이라고 하던데 왜 이것도 서른 세 명인가하고 생각했었다. 할아버지 이름만 기억한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중학교 너머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외사촌이 태극기하고 이름 적힌 문서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간 후 없어졌다. 나중에 달라고 하니가 없다고 하더라.⁵⁵⁾

동학의 사발통문과 같은 유형으로 33명의 이름이 혈서로 적힌 문서라는 점으로 보아 김연일은 갑오농민전쟁이나 의병활동의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김연일은 독립운동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김연일은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닷에 해당하는 형국이어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독립운동의 바람이 전국으로 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갑출의 구술을 보자.

할아버지는 제주도에 들어가실 때부터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갔었다.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어릴 때 강창규 스님이 우리 집에 다니면서 듣게 되었다. 강창규 스님이 오시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얘기를 나누면서 내

55)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게 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시작한 것 같다. 그것에 관해서는 내가 물었다. 왜 육지 사람이 하필 제주도 그 멀리까지 가서 운동을 했느냐고. 할머니 말씀으로는“우리나라 생긴 모습이 제주도가 닮아서 거기서부터 들어 올려야 이 독립 바람이 육지까지 분다”고 하셨다고 한다.⁵⁶⁾

본 연구자는 1998년 승려 혜관에게서 이미 김갑출의 구술과 동일한 내용을 구술 받은 적이 있다. 혜관은 2000년에 사망하였고 김갑출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3·1운동이 기념년이니까 그 전해인 무오년에 제주 반세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당시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배의 닻가지로 봤는데 닻가지가 먼저 움직여야 배가 움직인다고 하여 제주에서 반세운동을 먼저 벌여야 우리나라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세운동을 벌인 것이예요. 책임 받은 사람은 김연일이고 경상도 영일군 사람입니다.⁵⁷⁾

혜관의 구술에서도 우선 제주도라는 닻을 들어 올려 반세운동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하려는 것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게다가 김연일은 집안 조상들의 무덤을 제주도로 옮겨놓았다. 이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드나들었고 군자금과 물자를 옮겼다 한다.

강창규 스님이 오셔서 내게 “너희들 윗대 선친 묘가 제주도에 밀입장 되어 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와서 네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장손인데..” 그랬다. 그때는 어려서 관심이 없었다. 할머니 말씀에도 마산(영일군 입암리의 바로 인근 : 필자 주)에서 풍배를 띄우는데, 주로 관을 많이 실고 다녔다고 한다. 할머니 얘기로는 군자금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윗대 할아버지들 묘도 제주도로 옮겼다고 얘기 들었다. 아마 비밀리에 드나들

56)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57) 승려 혜관의 구술 (서귀포시 보목동, 82세, 1998. 1. 14. 필자 채록).

기 위해서 관을 이용해 이장도 하고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게 아니었겠냐고 했다.⁵⁸⁾

이렇게 독립운동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온 김연일은 4년 동안 법정사에서 신도들에게 반일사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김연일은 일본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제주도에서부터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림사 승려들을 결집하여 법정사로 내려왔다. 이와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 인사들과 교류를 지속하였다는 점⁵⁹⁾에서 시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창규와 방동화 그리고 김연일의 기림사와 박만하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이들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을 경험하였음에도 그 후신인 천도교 계열이 아니라 불교 승려로서 법정사에 내려와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조직하기 이전부터 이미 항일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일반 참여자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항일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법정사 인근 마을에서 700명의 동조가 있었다. 이들 일반 참여자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을 당시 제주도의 사회 상황에서 찾아내 보겠다.⁶⁰⁾ 일제의 제주도 행정에 대한 장악은 1906년 제주부를 제주군으로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서 정의군·대정군과 함께 3군제가 만들어졌고 점차 3군의 무기를 모두 없애었으며 전통직제를 없애 향촌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해 나갔다. 1908년 제주경찰서를 설치하여 경찰력을 강화했고 1917년에는 10개소의 순사주재소가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1907년에 제주관세서를 설치하여 징세를 강화하였다. 1914년 시장을 개설하였고, 1918년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제주지점을 개설하고 각 지역에 금융조합

58)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59) 이에 대해서는 V장 2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60)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 『광복50주년 기념 제주지방독립운동사학술회의 자료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10. 27.) 참고.

을 설치하여 토지경영과 각종 산물의 약탈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농민을 대상으로 토지 저당 고리대 사업을 하였다. 1912년 지적측량과 1913년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대부분 자작농이었던 제주도민 상당수가 토지를 강탈당하였다. 게다가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주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고 도민에게 부역을 강제하였다. 일제는 행정 장악을 통해 경제적 수탈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1918년 경 제주도민들은 일제의 횡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민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1898년 방성칠난과 1901년 이재수의 난 그리고 1909년 제주의병항쟁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이다. 1898년의 방성칠난은 조세 수취 개혁을 요구하며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거사를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일본 복속설이 퍼지면서 신뢰를 잃어 끝나게 되었다. 1901년 이재수의 난은 프랑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이용한 천주교도들의 횡포가 원인이 되었으나 외세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폭발하는 등 이들 사건들은 제주도민들이 외세 침탈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09년 제주의병항쟁은 을사조약 체결에 분개하여 최익현 등의 호남의진과 연합을 계획하며 일본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것이었다. 제주도민은 이렇게 외세의 횡포에 대항하여 뜻을 모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미루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시기에도 제주도민들은 일제의 행정 장악과 경제적 수탈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운동이라는 취지에 동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권회복이라는 거사 목적에 동조한 주민들은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등 세 명을 구타하였다.⁶¹⁾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와 함께 걸어오는 조선인 두 명까지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였거나 일본인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백여 명의 주민들이 일본인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몽둥이와 돌로 구타한 것이다.⁶²⁾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은 일본

61) “도로에서 3인의 내지인이 오자, 백여 명의 선봉자가 몽둥이 또는 돌로 때렸다.”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62) 기독교를 배척하여 구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지금까지 발굴된 원 자료 어

의 통치로 인한 행정적인 피해는 물론 상인들의 수탈까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내쫓겠다는 거사 취지에 동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벽에 시작하여 11시경 해산될 때까지 인근 마을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700명이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바로 제주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세로 인한 피해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과였다.

이상 주도세력간의 관계와 이들의 항일의식을 통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주도세력들은 김연일과 기림사라는 인연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 엮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흐름을 몸소 체험하며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법정사에 모였다. 700여명의 지역 주민들 또한 일제의 침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2.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여기에 승려라고 하는 주도세력의 신분 특성을 나타내어 불교 포교라는 목적도 함께 드러내었다. 이들이 표방한 거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는 『정구용 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 요사』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일제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들이다.

1923년 자료인 『정구용 판결문』은 「이유」에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조선을 잘 통치해서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음으로”, “지금부

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IV장 2절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터 조선정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으로 내지인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심 공판 경위서」에는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라는 등으로 거사를 일으키는 목적이 독립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력 6, 7월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폭행 협박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도와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법정사에 모여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 바.⁶³⁾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나는 대정 7년 음력 2월경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법정사에 3년 이전부터 김연일이라는 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해 음력 8월 15일 법정사에 참배하려고 남녀 30명이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든 사람을 향해 이번에 불무황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불무황제의 명에 따라야 한다고 하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찬성했다. 1918년 음력 9월 1일 법정사에 가니 남자 30명이 모여 있었는데, 김연일은 모두를 향해 자신은 불무황제이다. 지금부터 조선정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으로 내지인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⁴⁾

원심 공판 경위서

피고 고용석이 대정 7년 음력 9월 2일 김봉화의 동생으로부터 법정사로 동행할 것을 권유받아 동행했던 바, 많은 사람이 마당에 깃발을 세워 기도를

63) 「이유」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64) 「양남구에 대한 신문 조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하고 절을 출발했다. 절을 출발할 때 김연일은 이번에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라고 말하였다.⁶⁵⁾

이처럼 정구용·양남구·고용석의 진술에 공통적으로 국권회복이라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강창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한일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범죄 이유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의 「이유」에도 “김연일이 일본인을 쫓아내고 선정을 펴기 위해 거사를 일으켰다”고 표현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

교육과 학식 소양이 없기 때문에 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불량한 무리에게 선동되어, 사려 없이 앞뒤를 가리지 못한 행동으로 치달아 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⁶⁶⁾

이유

동년 10월 5일부터 이튿날인 6일에 걸쳐 불교신자 등이 법정사의 집회에 모여 온종일 예불을 드리는 정례일임을 이용하여, 피고 방동화는 …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전토에 불교를 퍼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의군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쫓아내려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력하여 원조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말을 설교하였다.⁶⁷⁾

또한 일제 고등 경찰의 극비문서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 서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다”고 하고 목적은

65) 「원심 공판 경위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66)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67)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국권회복’이었다고 하였다.

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면서, 4년 전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법정사에 거주하며,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 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자 했다.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舊 盓蘭盆) 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탄할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가까운 장래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관련하여,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와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⁶⁸⁾

앞에 인용한 문서들은 모두 일제 당국이 기록해 낸 것들이다. 이렇게 일제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도 세력들의 국권회복이라는 독립운동 의지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당시 국내의 항일 저항의 정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주도 세력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함으로써 인하여 우리 동포가 일본인 관리와 상인들의 횡포에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민족의 고통이 생긴 것이므로 이에 일본인을 몰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들 주도세력들의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드러나고 있다. 앞에 인용한 자료들에 이미 나타났지만 요점만을 다시 정리하면, 『정구용 판결문』의 「이유」에서 “주지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내지인 관리 및 내지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정구용이 쓴 격문의 내용은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당해 괴롭다. 일본의 강제에 의해 조선을 탈취 당한 조국의 백성은 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폭도사 편

68)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본)영인판(1934).

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서도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탄할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등으로 일제 강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정세를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백성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권회복이며 이를 위해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당국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발발한 해로부터 멀어져갈수록 점차 독립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사교도들의 불만의 표시였다고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였다. 자료들을 토대로 시대별로 달라지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체적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 『정구용 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와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가 있다. 단편적으로나마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로는 『매일신보』의 기사 3편도 있다. 이들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비교 검토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시각이 의도적으로 바뀌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참여자의 숫자가 달라지며 다음은 거사 목적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중앙도서관**

우선 참여자의 숫자 변화를 살펴보자.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1920년 4월 12일 『매일신보』에 처음 기사화 되었다. 이 기사는 제주에서 김연일이 ‘7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당시 『매일신보』는 그간 제주도에 대한 기사를 가끔 싣고 있었으나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주도자 김연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그래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들만 채택되어 ‘김연일, 불무황제, 700명, 징역 십년’이 들어간 기록이다.

제주에서 불무황제라 하고 부하 7백 명⁶⁹⁾을 거느리고 소요한 김연일(51)은

69) 이하 인용문의 참여자 숫자는 필자가 강조하려고 굵게 표시하였다.

목포지청에서 결석 재판을 받고 징역 십년 죄로 종적이 없었던 바 3월 중에 제주도로 돌아간 것을 체포하였다는데 이번에 목포분감에서 복죄하였다더라. (광주)70)

이 기사만으로도 김연일은 700명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으며 그 죄가 징역 십년에 해당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3·1 운동의 결과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항일운동이었음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한 점은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독립운동 기운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연일·강창규를 비롯한 거사의 주요 인물이 검거되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급히 종결시킨 점도 언론 보도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71)

1923년 『매일신보』 2월 20일자는 강창규 체포소식을 기사화하면서 참여자들을 '400명'의 대폭동단이라고 표현하였다.

제주도 중면 사계리 강창규(41)라는 자는 자칭 불무황제 이백(二百) 대장 겸 치민(治民) 황제 김연일이라는 자와 공모하고 선위선봉대장(先衛先鋒大將)이라고 한 후 대정 8년 3월 6일 밤에 좌면 도순리에 있는 승려 수명과 부근의 주민 수십 명과 단결한 후 각리 구장에게 편지로 이번 옥황상제 성덕 주인이 출세하여 조선 백성을 구할 터인 즉 동월 3일 오전 4시에 리 구민을 인솔하여 좌면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러한 후 우리들은 먼저 관청으로 가서 관리를 체포한 후 독립을 계획할 터인데 만일 이 명령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법에 처하겠다는 격문을 보낸 후 그들의 일단은 총과 몽둥이를 휴대하고 각 곳으로 돌아다니며 장정군을 뽑아 4백 명의 대폭동단을 조직하여 내지인의 집과 동리 주재소에 침입하여 기구를 파괴하고 공문서와 건축물을 살라버리었는데 범인 김연일은 즉시 체포되었으나 강창규는 어디로 도망하

70) 「불무황제 체포」 『매일신보』(1920. 4. 12.).

71) 정궁식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고찰하여 높은 양형과 재판의 빠른 처리 등으로 보아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국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았다. 정궁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 ((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10~12쪽.

였는바 4년 만에 작년 12월 28일 제주도 우면 상호리 화전동에 잠복한 것을 동리 주재소의 요코야마(横山)무장과 김순사가 탐지한 바가 이루어져 즉시 체포되었다더라.⁷²⁾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있었고 더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국적 과장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서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23년 6월 29일 자료인 『정구용 판결문』에서는 '300~400명'이 참여하였다고 바뀌었다.

이 유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록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력 6, 7월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폭행 협박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려고 법정사에 모여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 바, ... 리민의 가입을 강요하여 동면 강정리 도순리 간의 대천의 서안 부근에서 천선 및 전주 2개를 절단하고 하원리에서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및 2명의 조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동(同) 세력이 점점 증대되어 약 300여명이 되었다.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선봉대인 강창규는 가담자들에게 명하여 속칭 도순리 대천이라 부르는 천으로부터 서쪽도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전주 2개를 절단했다. 그로부터 더 나아가 하원리에 이르렀을 때는 총 세력이 삼 사백 명이 되었는데, 하원리로부터 중문리 주재소를 습격할 목적으로 중문리로 향하는 도중 하원리의 인가에서 떨어진 도로에서 3인의 내지인이 오자, 백여 명의 선봉자가 몽둥이 또는 돌로 때렸다.

72)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1923. 2. 20.).

1934년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는 '약 400명'으로 표현되었다.

제주도 소요 사건

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면서, 4년 전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법정사에 거주하며,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 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자 했다.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舊 盂蘭盆) 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 왜도는 우리 조선을 병탄할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가까운 장래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관련하여,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내쫓아야한다고 말하고, ... 2일간에 걸쳐 리민 약 400명을 억지로 징집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원인은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함으로부터 김연일은 사전에 친교가 있는 동지 선도교 수령 박명수와 미리 짜고 일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20년 뒤인 1938년 8월 13일자 『매일신보』에 와서는 '약 300명'으로 표현되었다.



원래 제주도는 미신사화의 신도가 많은 곳으로 대정 2년경부터 강증산을 교조로 한 보천교 미륵교 동학교 대세교와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동학계의 수운교 등이 들어와서 대정 8년에 김연일이란 자가 그 사교도를 규합하여 가지고 자칭 불무○○라 하는 제주도 대정면 산방산에서 ○○식을 거행한 후 약 3백 명의 민중을 선동하여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불을 질러 태워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사교도는 여전히 불온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으로 명랑성이 없고 음험한 공기가 떠도는 것은 반드시 민중의 배후에 어떠한 사교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⁷³⁾

73) 「한라산을 근거지로 총후에 암약한 사교」 『매일신보』(1938. 8. 13.).

이상 시대별 자료에 따라 달라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수

자 료	자료 연도	참여자 수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	700명
매일신보	1923년 2월 20일	400명
정구용 판결문	1923년 6월 29일	300~400명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 경찰요사	1934년 ★74)	약 400명
매일신보	1938년 8월 13일	약 300명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숫자가 1920년 기록에서는 700명이었다가 점차 400명으로 축소되고 20년이 지난 1938년에는 300명으로 묘사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거사 목적에 대한 시기에 따른 기록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첨부된 1919년 2월 4일 제1심판결문은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근래에 선도교 교지를 믿었는데, 경찰의 선도교에 대한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내지 관리를 도와로 쫓아내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1920년 『매일신보』에는 별다른 표현 없이 그저 ‘불무황제 김연일’이라고만 하였다. 1923년 『매일신보』에는 “승려 여러 명과 부근의 주민 수십 명이 단결한 후에 일본인 관리를 체포한 후 독립을 계획할 터인데”라고 하였다. 그리고 1923년 『정구용 판결문』에서는 “제국 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온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불교도 및

74) 이 자료는 출판된 도서이기 때문에 월 일을 표기하지 않았다.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법정사에 모여든 신도들에게 가담을 강요하였다”라고 하였다. 1928년의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강창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한일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했다’ 때문이라고 하였다. 1934년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켰으며 국권회복을 위해 일본인을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해서 일을 꾸며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38년에 가서는 완전히 그 특성이 다르게 표현된다. 1938년 8월 13일 『매일신보』는 무극대도교 사건을 보도하면서 1918년의 김연일을 인용하여 제주도의 종교상황을 문뚱그려 묘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원래 미신사파가 많은 곳인데, 1918년에 김연일이 사교도를 규합하여 제주도 대정면 산방산에서 불무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300명의 민중을 선동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소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일제는 수많은 종교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일환으로 1936년 유사종교해체령을 내려 종교 활동을 관리 통제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그동안 사기나 강간 등의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써오기도 하였다. 1938년 『매일신보』 기사는 이 해체령의 실천 기간 중에 나온 것으로 무극대도교의 항일활동 의미를 축소함은 물론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도 폄하하려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920년 700명의 참여에서 1938년 300명의 참여로, 독립운동을 위한 목적이 사교도의 민중 선동 사건으로 시각이 바뀌었다.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시키려 하는 일제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작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은 이후 보천교의 난으로 폄하된 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아울러 불교 포교 또한 내세웠다. 『정구용 판결문』에서 김연일은 박주석에게 제주도의 일본인을 모두 몰아내고 이어서 육지에 나가 불교를

포교하고 싶으니 조력해 달라고 청하였다.⁷⁵⁾ 양남구⁷⁶⁾와 김봉화⁷⁷⁾의 진술 기록에서도 또한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조선을 잘 통치하여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사 목적을 주목할 수 있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서도 조선전도에 불교를 퍼트리겠다는 거사의 목적을 설명하였음이 표현되어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 세력들은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법정사 항일운동을 실행한 것임을 살폈다. 주도세력의 항일의지와 주민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주도세력간의 관계와 그들의 항일의식이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제주도 사람인 강창규와 방동화와의 인연으로 내려온 김연일과 기림사 승려들이었다. 이들은 법정사 활동 이전부터 항일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거사의 목적이 국권회복임을 분명히 표명하였고 주민들 또한 외세의 횡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거사에 참여하였다.

-
- 75)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76)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77) 「원심공판 경위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IV.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과정

1.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

김연일은 1915년경부터 1918년까지 4년여 법정사 생활에서 신도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며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1918년에 들어 주도세력을 결집하고 항일운동 거사 의지를 표명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준비과정과 역할 분담된 주도세력의 조직도를 구체화 시켜보겠다.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의 발굴로 각 인물의 역할과 거사의 조직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다. 법정사에 함께 거주하던 주도세력들은 1918년 4월 경 항일운동 의지를 결집하고⁷⁸⁾ 점차 거사 준비를 구체화시켜 나간다. 우선 7월 말 경에는 방동화가 박주석을 찾아가 거사에 동참을 권유하고, 9월 8일 박주석은 법정사로 가서 계획에 참여하였다.⁷⁹⁾ 방동화가 박주석을 찾아가는 것은 김연일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III장에서 살펴보았다.⁸⁰⁾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4월경 주도세력의 거사 합의에서부터 일반 참여 세력의 구성과 무기 준비 등 6개월여의 준비기간

-
- 78) “김연일은 대정 7년 음력 3월경, 동사(同寺)에서 피고 방동화 및 동사에 주거하던 피고 강민수, 정구용, 김인수, 김용충, 장임호에게 우(有) 의도를 알리고, 그 동의를 얻었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79) “대정 7년 음 6월말 경 피고 방동화가 자택에 와서 법정사에 와달라고 말한 것에 말미암아 음력 8월 4일 법정사에 이르게 되었다. 법정사에는 피고 김연일·강민수·장임호·김용충·김인수 등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이번 폭동을 의논하였다.”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80) 박찬식은 그의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제주도, 『제주도』 통권 99호, 1996. 1. 85쪽)에서 선도교의 교단적 참여로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서 참여자의 주소지별 분석을 통하여 앞의 III장 1절의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에서 고찰하여 선도교의 교단적 참여로 보기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 있었다.

다음의 <표 3>은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기별 거사의 준비 과정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표 3> 법정사 항일운동 준비 과정

일 시	내 용
1918년 4월경 (음력 ⁸¹⁾ 3월경)	법정사 거주 주도 세력의 거사 합의
1918년 7, 8월 (음력 6, 7월)	법정사 불교도 및 인근 농민들로 조직 구성
1918년 7월 말 (음력 6월 말)	방동화가 박주석을 초빙
1918년 9월 8일 (음력 8월 4일)	박주석의 법정사 행 : 법정사 거주
	주도 세력 : 거사에 대한 구체적 상의
1918년 9월 14일 (음력 8월 10일)	법정사 비거주자들도 법정사 회합으로 참여자 확대
	곤봉·기·총기·격문 등을 준비
	조직체 구성 - 불무황제 즉위 - 모사(謀師)·선봉·중군·후군의 부서와 장사 정함
1918년 9월 19일 (음력 8월 15일)	- 법정사 참배 교도 30명에게 거사의 목적인 조선의 독립과 불교포교의 목적 표명 - 일본인 관리와 상인의 타도 표명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신도들에게 거사의 뜻을 전하여 참여하도록 권하고 이들 신도와 지역 농민을 모아 조직을 구성해두고

81) 관련 자료들이 음력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음력을 병기하였다.

있었다.⁸²⁾ 1918년 9월 14일 준비한 거사를 실행에 옮겼다. 9월 14일 이후 15일 동안은 마을에 배포할 격문과 곤봉, 화승총 3정과 깃발을 제작하였다.⁸³⁾ 1918년 9월 말 정구용은 격문을 통해 '독립을 위해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쫓아내야하겠으니 사람을 모아서 집합하라'는 요지를 각 마을의 구장들에게 알렸다.⁸⁴⁾

이러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부서와 각 부서의 책임자를 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들이 구성한 조직체를 살펴보겠다. 이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주도세력들이 군대조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연일을 비롯한 주도세력들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활동 혹은 갑오농민전쟁의 흐름 속에 있었던 세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 또한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⁵⁾ 또한 조직 구성을 분석해보면 군대조직의 틀 안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어 법정사 항일운동이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인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자를 조직해낸 결과 맺어진 거사였음이 드러난다. 일

-
- 82)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陰) 6, 7월 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 법정사에 모여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 바.”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83) “동년 9월 14일 이후 동월 말일에 이르는 사이에 동사(同寺)에 와 있던 피고 강창규·김삼만·김봉화·양남구·최태유·강봉환도 우 계획에 가담하니, 이상의 각 피고들은 그 무렵 동사에서 협력하여 곤봉 및 각 마을에 배포할 격문 등의 준비를 마치고 … 이리하여 준비된 장기(長旗) 6기, 화승 3정.”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84) “8월 말 각 구장 앞으로 격문을 만들게 되었는데 … 3, 4통을 내가 만들었다. 그 내용은 … 일본의 강제에 의해 조선을 탈취 당한 조국의 백성은 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이번에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으므로, 이 때에 마음과 힘을 합쳐 후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면 각 리장은 바로 리민 장정을 모아 술군하고 동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 지내(地內)에 집합하라.”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85) 한말 의병의 조직구성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구성처럼 의병대장·선봉장·중군장·후군장·참모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었다.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의병사』(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0),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병사』 하(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2), 전라북도, 『전라북도지』 제1권(전라북도, 1989) 참고.

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사교도들이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려고 일으킨 난동이라고 하였으나 이들 조직체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모인 군중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18년 9월 14일 김연일은 불무황제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거사를 위한 조직체를 완료하였다.⁸⁶⁾ <그림 5>는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나타나는 각 인물의 역할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조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김연일 중심의 거사 구심점인 지휘부와 강창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행동부로 나뉜다. 지휘부에는 총지휘자인 김연일과 그를 보좌하는 좌대장과 우대장이 있었고, 행동부에는 거사 현장의 지휘자인 선봉대장과 선봉대장을 도와 거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모사 그리고 선봉집사와 선봉좌익장 선봉우익장을 두었으며, 이들 밑에서 법정사 신도들이 선봉대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 주민을 중간에서 지휘할 중군대장과 후군대장을 두어 선봉대장의 역할을 군중 사이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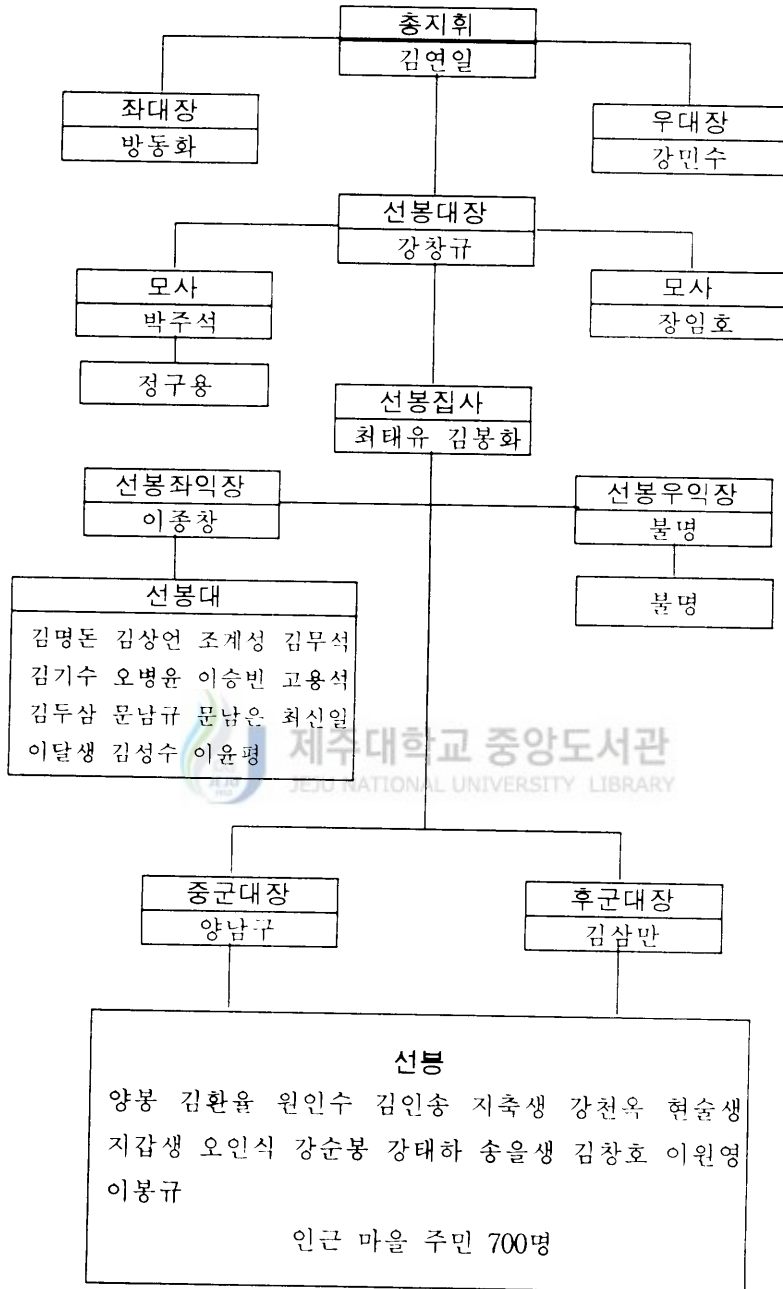
거사 당일 지휘부는 법정사에 머무르고 거사 현장에서는 강창규가 선봉대장으로 행동부와 참여자를 이끌어 지휘하였다. 이들 조직도를 살펴보면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바로 법정사 거주자들과 강창규 등의 승려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법정사 거주자는 김연일·강민수·장임호·김삼만이며 방동화·강창규·최태유도 승려이다. 박주석은 김연일과의 인연으로 참여하였고 양남구는 총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서⁸⁷⁾ 중군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와 부서의 책임자는 다음 <그림 5>의 조직도와 같다.

86) “동년 음력 8월 10일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고 칭하고 그 즉위식을 행하였고 모사 이하 선봉 중군 후군 각 장사의 부서를 정하고 기 곤봉 총기 등을 준비해 놓았다.”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87) “양남구는 도당의 중앙에서 총기를 쥐고 영남리, 호근리, 중문리에서 공포를 발사하고 ... 양남구는 화승총 1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월 6일 우 이춘삼의 주소에서 동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춘삼이 소지하였던 우 총 2정 및 화약 한 움큼을 양남구에게 양도하였다. 양남구는 그것들을 양도 받았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5>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



김연일은 불무황제라는 상징적 존재로 조직체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총지휘하였다. 좌대장 방동화와 우대장 강민수가 김연일을 보좌하는 지휘부로 거사의 준비에서부터 김연일과 함께 거사 전체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특히 제주도 사람인 방동화는 법정사의 불교신도들에게 거사 취지를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역할과 주민을 참여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⁸⁸⁾ 또한 박주석을 참여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등 김연일을 보좌하는 지휘부로서 거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민수는 10월 7일 거사일에 김연일과 법정사에 잔류하였으며⁸⁹⁾ 정구용과 함께 오랜 기간 체포되지 않았다.⁹⁰⁾ 거사 당일 방동화의 현장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연일과 함께 전체 거사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위치였고 당일 직접 주민들과 행동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대장 강민수와 같은 역할인 좌대장으로 김연일을 보좌하기 위해 법정사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지휘부는 거사 당일 현장에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성공 기원을 위한 기도를 위해 법정사에 머물렀다.⁹¹⁾

거사 현장 행동부의 지휘자는 선봉대장 강창규였다. 거사의 전체 지휘자인 김연일을 비롯한 지휘부 조직이 법정사에 머무르는 대신 강창규는 거사 현장의 실제적 지휘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고 주민을 이끌었

88) “동월 14일경, 동사에서 피고 김연일, 박주석, 방동화는 협의하여 동년 10월 7일 폭동을 일으켰다. … 동년 10월 5일부터 이튿날인 6일에 걸쳐 불교신자 등이 우 법정사의 집회에 모여 온종일 예불을 드리는 정례일임을 이용하여, 피고 방동화는 동일 동사에 모인 피고 김명돈, 김상언, … 이윤평에게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전토에 불교를 퍼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의군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쫓아내려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력하여 원조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말을 설파하였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89) “이튿날 7일 미명에 피고 김연일, 강민수, 김인수, 김용충은 동사에 머무르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90) “공범관계 : 공범자 중 … 정구용 및 강민수는 아직 체포에 이르지 못함.”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91) “자신(김연일)은 싸움이 잘되기를 기원하기 위한 기도를 행하기 위해 강민수, 김인수, 김용충과 함께 동사에 머무름으로써.”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다. 강창규는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웠으며 길 가던 일본인을 구타하도록 지시하였고 전선과 전주 절단을 지시하는 등 거사에서 참여자들을 직접 지휘한 거사 현장의 우두머리였다.⁹²⁾ 방동화가 초빙해 온 박주석은 모사로, 당시 최고 연장자인 장임호도 모사로서 거사 현장에 있었다.⁹³⁾ 박주석은 선봉대장 강창규와 사태의 추이를 살피 서로 의논하면서 거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⁹⁴⁾ 또한 선봉대장 강창규를 도와 선봉집사로 최태유와 김봉화가 그리고 선봉좌익장 이종창과 선봉우익장이 참여자를 이끌었다. 여기에 김명돈 등의 법정사 신도가 선봉대로 나서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⁹⁵⁾ 격문을 썼던 정구용은 박주석을 도와 사람들을 모집하여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⁹⁶⁾ 700여명 참여자들은 중군과 후군으로 조직되었다. 중군대장 양남구는 총기를 가지고 참여자들을 이끌었고⁹⁷⁾ 법정사에 거주하던 김삼만이 후군대장이 되어 참여자의 후미에 있었다.⁹⁸⁾ 이상

-
- 92) “그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세가 점점 증대됨에 따라 중문리에 쇄도한 피고 강창규 김상언은 동 경찰관주재소의 건물에 방화하고 그에 관련되어 갖추어져 있는 기구, 문서와 함께 동 건물 전부를 소훼(燒燬)하고 폭위를 떨쳤을 뿐 아니라, … 피고 강창규는 하원리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윤식명, 원용혁을 구타, 결박하도록 지시하고, … 피고 강창규는 강정리와 도순리 사이를 흐르는 통칭 대천의 서안에서 그 곳에 있는 전선 및 전주 2개를 절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93) “각 피고들은 박주석, 장임호의 지휘를 받아 힘써야 하는 이유를 전개(前掲)한 각 피고에게 알렸다. … 이튿날 7일 미명에 … 그 밖의 사람들은 피고 박주석, 장임호의 지휘 하에 … 동사를 내려가 쏠살같이 나아가 서귀포를 습격하였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94) “행진 중 피고 박주석은 각 리의 리민이 가입하는 모양으로 서귀포로 향하는 것이 불리하겠다고 걱정하여 피고 강창규와 의논하여 길을 바꾸었다. 우면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기로 결의하여 … 피고 강창규 지휘 하에 전개(前掲)와 동일 방법으로 리민을 협박하여 가입자를 모으고 마침내 그곳에 이를 수 있었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95) “피고 김명돈, 김기수, 강봉환, 문남은, 이승빈, 김무석, 오병윤, 김성수, 김두삼, 이달생, 조계성, 최신일, 이운평은 행진 시에 앞서 말한 각 마을에서 폭도 가입자를 구하였다. 마을 사람들을 협박함으로써 모두 출선하여 폭도 세력을 도왔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96) “피고 정구용은 피고 박주석을 따르며 폭도 가입자를 알아보는 임무를 맡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97) “양남구는 도당의 중앙에서 총기를 쥐고 영남리, 호근리, 중문리에서 공포를 발사하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법정사 항일운동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거사를 실행하기 전 6개월의 준비기간을 통해 조직체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었다. 총지휘자는 김연일이었으며 거사 현장에서는 선봉대장 강창규가 참여자를 지휘 통솔하였다. 거사의 사전준비부터 부서 조직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된 활동 모습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의 역량을 볼 수 있었다.

2.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법정사 항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자. 1918년 10월 7일 새벽 법정사를 내려간 신도들이 선봉에 서서 인근 마을 주민들을 가입시키며 확대된 거사가 중문 천제연 인근에서 해산되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각 인물의 역할과 당일 거사 진행 과정이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앞서 살펴본 계획적인 사전 준비 끝에 1918년 10월 7일 거행되었다. 『정구용 판결문』⁹⁹⁾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¹⁰⁰⁾에 모두 10월 7일 새벽에 거사를 시작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10월 5일과 6일 법정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루 종일 예불하는 날이어서 이날 모인 사람들과 7일 새벽에 출정식을 갖고 법정사를 내려가 도순리로 향하였다.

98) “김삼만은 폭도의 최후에 있으며 가입자가 탈퇴하여 달아남을 막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99) “3일 새벽에 34명이 산을 내려가 우선 먼저 도순리 윗 쪽의 상동으로 가.”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100) “동년 10월 5일부터 이튿날인 6일에 걸쳐 불교신자 등이 우 법정사의 집회에 모여 온종일 예불을 드리는 정례일임을 이용하여, … 이튿날 7일 미명에 피고 김연일·강민수·김인수·김용충은 동사에 머무르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 거사일은 2002년 『정구용 판결문』 발굴 이전까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의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舊 盪蘭盆) 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라는 기록을 신뢰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논란이었다. 당시로서는 이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의 9월 19일은 양력 날짜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9월 19일을 음력으로 보고 음력 9월 19일이 선도교의 창립일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 날을 기념하여 거사를 일으킨 것으로 연구되었던 적이 있다.¹⁰¹⁾ 이는 일본이 당시 양력을 채용하여 쓰고 있었던 상황을 간과하고 적용한 잘못이다. 9월 19일은 우란분재를 위해 법정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거사의 뜻을 표명한 날이다. 거사일은 양력 10월 7일이다. 『정구용 판결문』은 음력 9월 3일로 명기해 놓고 있다. 이 문서의 발굴로 거사일은 1918년 음력 9월 3일 즉, 양력 10월 7일이었음이 밝혀졌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는 양력 10월 7일로 기록해 놓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김연일이 4년여 법정사 활동 속에서 행한 항일운동 필요성에 대한 평소 의식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918년에 들어 4월부터 준비하고 구성한 조직이 10월 7일 새벽 거사의 중심이 되었다. 주도세력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법정사 신도와 인근 주민들에게 항일운동의 의지를 알려왔다. 정구용은 1918년 9월 말에 “각면 각 이장은 바로 리민(里民) 장정을 모아 술군(率軍)하고 동월(음력 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 지내(地內)에 집합하라. 그러한 한편 4일은 대거 제주항을 습격하고 관리를 체포하고 일반 일본인을 내쫓아야 한다”¹⁰²⁾는 격문을 각 마을 구장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거사를 알렸다. 그리고 드디어 거사가 실행되었다.

운동의 전개 과정을 거사 당일의 행적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1)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2쪽.

102)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표 4>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

주요 행적	내 용	
거사 통보	- 격문 : 1918년 10월 7일 오전 4시 하원리 집합 통보 - 1918년 10월 5일·6일의 법정사 정례 예불일을 이용 거사 통보	
출발	- 1918년 10월 7일 새벽 - 마당에 깃발을 세워 성사 기원 - 깃발과 무기 휴대 : 화승총 3정, 몽둥이 수 십 개	
서귀포 습격 예정	도순리 상동	선봉대가 4·5명씩 나뉘어 참여자 모집
	영남리	민적부를 토대로 25명 참여자 모집
	서호리·호근리	민적부를 토대로 참여자 모집
중문리로 예정지 변경	강정리·도순리	전주와 전선 절단
	하원리	일본인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일행 구타
	중문리	주재소 방화·기물 파손
해산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기마순사대의 총격으로 해산	

1918년 10월 7일 새벽, 거사가 실행되었다. 마당에 깃발을 세워둔 채 성사 기원 기도를 올리고 법정사를 출발했다. 법정사를 출발할 때 김연일은 “이번에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김연일·강민수·김인수·김용충은 법정사에 머무르고, 사전에 조직해 놓은 부서에 따라 박주석·장임호·강창규의 지휘하에 서귀포를 습격하기 위해 나아갔다. 사전에 준비하여 둔 화승총 3정과 몽둥이 수십 개를 가지고 큰 깃발을 내세우고 절을 내려갔다. 양남구와 문남규·고용석은 총기를 가지고 행렬을 따라갔다. 총기는 양남구가 소지하고 있던 것 하나와 이춘삼이 소지하고 있던 2정을 건네받은 것이었

고 약간의 화약을 가지고 있었다.

법정사에서 출발한 34명의 선봉대는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참여자 모집에 앞장섰다. 우선 먼저 도순리 윗 쪽의 상동으로 가서 박처사의 지휘를 받아 4, 5명씩이 조가 되어 각기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어 영남리로 가서 구장에게 민적부를 받아 장정 25명을 참여시켰다. 영남리에서 서호리와 호근리로 나아가 마찬가지로 민적부를 기본으로 하여 장정을 모집하였으나 예상한 수를 참여시키지 못하였다. 그러자 박주석과 강창규는 서로 의논하여 서귀포 습격을 중지하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예정을 변경하였다. 강정리를 거쳐 도순리로 가는 길에 강창규는 강정리와 도순리 사이에 있는 대천 서안(西岸)의 전선과 전주 2개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김상언이 이에 응하여 서귀포와 제주읍내 간 통신을 단절시켰다. 그리고 일행은 하원리로 향하였다. 하원리 인근에서 참여 인원이 300~400여명이었다. 강창규는 하원리에서 우연히 만난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윤식명·원용혁을 구타 결박하도록 지시하였다. 양남구·김상언·문남규·최태유·고용석 등이 앞장서고 100여 명의 선봉자가 이들을 몽둥이와 돌맹이로 구타하고 길가에 내던져 두었다. 윤식명과 원용혁은 일본인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하였다.

그런데 윤식명과 원용혁에 대한 구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다고 본 기존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항상 일제에 저항하고 개화사상에 도전하며 더구나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증오심은 대단하였다”¹⁰³⁾고 하였는데, 이들 기존연구는 『제주 선교 70년사』¹⁰⁴⁾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선교 70년사』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일본인과 개화인을 배척한 폭동’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윤식명 목사 일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군중에게 다가갔다”가 구타를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중문 주재소 경찰관과 면직원들이 윤식명과 원용혁을 서귀포 오가와(小川)의원으로 입원시켜 한 달 간 치료 받게 하였다”

103) 제주도, 『제주도지(濟州道誌)』(제1권)(제주도, 1993), 1134~1135쪽.

104) 강문호·문태선 공저, 『제주 선교 7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8), 42~43쪽.

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개화인은 일본색을 띠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윤식명 목사 일행은 경찰관과 면직원들이 치료를 도와줄 정도로 일본인과 가까웠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구용 판결문』의 해당구절에 의하면 “도로에서 3인의 내지인이 오자, 100여 명의 선봉자가 몽둥이 또는 돌로 때렸다”고 표현하였으며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강창규는 하원리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 결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이들 일제 시대 자료에는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 일행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타하였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창규의 지시를 따른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은 고이즈미 키요미(小泉清身)와 함께 오는 이들을 모두 일본인이라고 보았거나 아니면 『제주 선교 70년사』의 표현처럼 일본색을 띠고 있었거나 일본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조선인 윤식명 일행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이들을 구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원리를 거쳐 중문리에 이르렀을 때 참여자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인근마을에서 700여명이 동조하여 참여하였다. 700명의 참여 인원은 거사 20년이 지난 1938년에는 300여명의 참여로 그 의미와 규모가 축소 희석되어 표현되었음은 앞에서 고찰한 바이다. 중문리에 도착한 강창규·김상언은 경찰관주재소의 물건들을 몽둥이로 부수었고 운동 참여자들이 따라서 기구와 문서 등을 불태웠다. 강창규는 지붕의 짚을 뽑아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재소 건물에 방화하였다.¹⁰⁵⁾ 오전 11시경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기마 순사대가 총으로 무장하고 공격해오자 참여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이 검거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¹⁰⁶⁾

105) “강(姜:강창규)은 주재소를 몽둥이로 부수고 모든 사람도 강(姜)을 따라 주재소의 건물과 물건들을 파괴했는데, 강(姜)은 성냥으로 지붕의 짚을 뽑아내어 거기에 불을 붙여 주재소를 불태웠다.”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106) “法井寺 … 戊午九月金延日招集壯丁數十人於寺中相與謀議襲擊倭警察中文駐在所放火廳舍 倭虜毀撤其寺.” (고병오, 『원대정군지』영인본, 대정역사문화연구회, 2006, 249쪽),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의 구술 (서귀포시 중문동, 52세, 2004. 9. 24. 필자 채록).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전 준비를 거쳐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시켰으며, 무기를 준비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6개월여의 준비로 거사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해내는 과정과 독립운동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중문 주재소를 불태우는 등으로 거사의 목적을 실행하던 중 무장한 서귀포 경찰관 순사대의 진압으로 거사는 막을 내렸다.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항일운동은 조직적인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조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법정사의 김연일과 거사 현장의 강창규의 지휘 아래 700여 주민들의 호응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항일운동이었음을 살펴보았다.



V.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와 주도 세력

1.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와 주도 세력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총 66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형사 사건부』와 『수형인 명부』에 나타나 있다. 『형사 사건부』에는 66명의 체포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수형인 명부』에는 이들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18명과 재판 전 옥사한 강수오¹⁰⁷⁾와 강춘근¹⁰⁸⁾을 제외한 46명이 기록되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조사하면서 체포하여 4차례에 걸쳐 구속이 행해졌다. 재판은 한 차례만 있었다. 1918년 10월 7일 거사 이후 제1심 판결일은 1919년 2월 4일로 채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죄명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이 주로 적용되었고 방화죄와 상해죄, 총포 화약 취급령 위반죄 등이 적용되었다. 재판을 받은 46명 중 징역형이 31명으로 김연일 징역 10년, 강창규 징역 8년, 박주석 징역 7년, 방동화 징역 6년 등에서부터 징역 6개월까지 있으며 기타 벌금 30원(불완납시 노역장 유치 30일)을 선고받은 사람이 15명 있다. 이러한 형량은 3·1운동의 지도자급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 형량이 크다는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제1심 판결일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 차례의 재판만으로 모두 처리되었다는 점 등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조급함과 위기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영향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¹⁰⁹⁾ 법정사 항일운동의 담당 사법기관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이었다.

107) "1918년 12월 27일 사망."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08) "1919년 1월 6일 구속 중 사망."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09) 정궁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

근거 법령은 형법 제106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42조 등이었다.¹¹⁰⁾ 각 인물에 대한 근거 법령은 이번에 발굴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자세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하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를 조직의 수뇌부에 해당했던 김연일과 강창규·방동화·정구용·박주석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이들 주도세력들은 대부분 거사 현장에서 피신하였다가 후에 체포되며, 이후 법률 개정으로 감형을 받거나 가출옥으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체포 시기와 형량 변화 그리고 가출옥과 실제 복역한 기간 등을 김연일·강창규·방동화·정구용·박주석의 차례로 정리하겠다.

본 연구자가 새롭게 발굴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와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¹¹¹⁾, 『김연일 가출옥 증표』와 유족들의 구술 자료 등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주도세력의 각 인물별 체포시기와 실제 복역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1) 체 포

김연일을 비롯 강창규·방동화·정구용은 피신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박주석이다. 이들은 장기간 도피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언제 체포되는지 살펴보자.

김연일은 1920년 3월 제주도에서 체포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던 1년 6개월 여 뒤이다. 김연일의 체포는 『매일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서 불무황제라 하고 부하 7백 명을 거느리고 소요한 김연일(51)은

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110)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111)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1924, 대구교도소, 국가기록원 소장).

목포지청에서 권석 재판을 받고 징역 십년 죄로 종적이 없었던 바 3월 중에 제주도로 돌아간 것을 체포하였다는데 이번에 목포분감에서 복죄하였다더라. (광주)¹¹²⁾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안후상은 김연일이 천제연으로 도주하다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연일 등의 주모자들이 보천교도들로부터 성금을 받았다는 데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였다. 안후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박주석 이하 12명의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 김연일은 천제연으로 달아나다 체포되었다. ... 일본 경찰은 김연일 이하 주모금을 취조하면서 교도로부터 거둬들인 성금이나 시주의 내막을 캐물었다.¹¹³⁾

안후상은 위 내용의 근거 문헌으로 『제주도지』¹¹⁴⁾, 『대하실록 제주백년』¹¹⁵⁾, 『서귀포시지』¹¹⁶⁾, 『제주도약사』¹¹⁷⁾ 등을 거론하며 “이들 시사(市史)나 도사(道史)에 실린 내용을 한꺼번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¹¹⁸⁾고 하였다. 그러나 안후상이 제시한 이들 문헌의 김연일에 대한 표현은 초기 연구에서부터 재인용되고 확대된 결과일 뿐으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인해 재정립되어야 할 사항들이 확인된 이상 이들 문헌들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다.

김연일은 거사 당일 거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법정사에 머물렀다.¹¹⁹⁾ 따라서 70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 한 중문리의 거사 현장에서는 검

112) 「불무항제 체포」 『매일신보』(1920. 4. 12.).

113)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 연구」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42~43쪽,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항일 항쟁 연구」 『종교학연구』15집(서울대학교종교학회, 1996), 166~167쪽.

114) 제주도, 『제주도지』(상권)(제주도, 1982), 390~391쪽.

115) 강용삼·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백년』(태광문화사, 1984), 211~221쪽.

11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서귀포시, 1988), 275~277쪽.

117) 변승규, 『제주도약사』(제주문화, 1992), 201~202쪽.

118) 안후상의 앞 논문(1995), 90쪽, 안후상의 앞 논문(1996), 182쪽.

거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신보』의 기사처럼 1920년 3월 중에 검거된 것이 확실하다. 이는 『형사 사건부』¹²⁰⁾와 『수형인 명부』¹²¹⁾에서도 확인되는데 권석 재판을 받았으며 1920년 4월 5일에야 판결 확정을 받아 형이 집행된다. 이로 보아 3월 중에 체포되었다는 것이 사실임이 입증된다.

다음으로 강창규는 1922년 12월 27일 제주도 우면 상호리에서 체포되었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체포장 집행 날짜가 나와 있다. 법정사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4년 3개월여 만에 체포된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주도세력과 주민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매일신보』에 체포 기사가 실려 있다.

제주도 중면 사계리 강창규라는 자는, ... 강창규는 어디로 도망하였는바 4년 만에 작년 12월 28일¹²²⁾ 제주도 우면 상호리 화전동에 잠복한 것을 동리 주재소 요코야마(横山)무장과 김순사가 탐지한 바가 이루어져 즉시 체포되었다더라.¹²³⁾

강창규가 피신하고 있던 4년 3개월의 기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들도 있는 시기였다.

방동화는 1918년 11월 26일 구속되었다.¹²⁴⁾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의 구술 증언에 의하면 거사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피신하였는데 숨어있는 동안 법정사 신도였던 백인화 보살이 음식을 가져다주어서 살았다고 한다. 방동화가 거사 당일에 체포되지 않은 것은 『형사 사건부』에서도 확인된다. 『형사 사건부』의 구속 일자를 살펴보면 모두 4차례에 걸쳐 참여자들을 구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1918년 10월 21

119)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120)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21)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소장).

122)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1922년 12월 27일 체포장을 집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23)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1923. 2. 20.).

124)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일에 1차로 구속되었다. 방동화는 4차 때에 혼자 구속되었다.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한 달 정도 숨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구용의 체포 시기는 본 연구자가 발굴한 『정구용 채소자 신분카드』에 나타나 있다. 정구용은 1923년 2월 13일 오후 3시 경북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동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4년 4개월 후에 체포된 것이다.

박주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형사 사건부』의 구속일자를 보면 1차 구속일인 1918년 10월 21일에 구속되었다.

주도세력의 체포 현황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5> 주도세력 체포 현황

구분 성명	체포 시기	구속 일자	은신 기간	체포 장소
김연일	1920년 3월	해당 없음 ¹²⁵⁾	1년 6개월	제주도
강창규	1922년 12월 27일	해당 없음	4년 3개월	제주도 우면 상호리
방동화	1918년 11월 12일 경	1918년 11월 26일	1개월여	제주도
정구용	1923년 2월 13일	해당 없음	4년 4개월	경북 영일군 대동배동 자택
박주석	1918년 10월 7일	1918년 10월 21일	해당 없음	거사 현장

이상과 같이 김연일은 1년 6개월, 강창규는 4년 3개월, 정구용은 4년 4개월 후에 체포되었다. 이들 주도세력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피신이 가능하였던 점에서 주민들과의 유대 관

125) 김연일·강창규·정구용은 권석인 채로 1919년 2월 4일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되자 형이 집행되었다.

계를 짐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2) 형 량

제1심 판결의 형량과 감형된 사항을 살펴 각각의 최종 형량을 정리 하겠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판결은 1919년 2월 4일 1회만 실시되었다. 제1심 판결에서 김연일·강창규·정구용은 권석으로 판결을 받았고, 방동화와 박주석은 출석하여 판결을 받았다.

먼저 주도세력의 형량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6> 주도세력의 형량

구분 성명	1차 판결	감 형	감형 근거	최종 형량
김연일	징역 10년	징역5년	1920년 칙령 제120호	징역 4년 1월
		징역 4년 1월	1924년 칙령 제10호	
강창규	징역 8년	징역 6년	1924년 칙령 제10호	징역 6년
방동화	징역 6년	징역 3년	1920년 칙령 제120호	징역 3년
정구용	징역 3년	징역 1년6월	재심 판결	징역 1년 1월 15일
		징역 1년 1월 15일	불명	
박주석	징역 7년	징역 3년 6월	1920년 칙령 제120호	징역 3년 6월

김연일은 1919년 2월 4일 권석인 채로 판결을 받아 소요 및 보안법 위

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20년 3월에 검거되었으나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920년 4월 5일부터 형이 집행되었다.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5년으로 감형되었는데, 가출옥 해 있던 중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다시 징역 4년 1월로 감형되었다.¹²⁶⁾ 안후상은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이 봉기를 주도하긴 했으나 진행과정에서는 소극적으로 만세 운동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기 때문에 10년형을 받았지만 5년으로 감형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²⁷⁾ 그러나 『형사 사건부』에 의하면 김연일은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칙령에 적용되어 감형된 사람은 김연일 외에 박주석·방동화·김상언·강봉환·김무석·조계성·문남규·고용석 등 모두 9명으로 이들 모두 형량의 절반을 감형 받았다.¹²⁸⁾ 1919년 2월 4일 제1심 판결에서 받은 형량이 1920년의 칙령에 적용되어 5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김연일은 1924년 다시 감형 받아 최종 형량은 징역 4년 1월이다.

강창규는 1919년 2월 4일 권석으로 판결을 받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¹²⁹⁾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의하면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1922년 12월 27일에 체포되어 1923년 1월 4일 판결 확정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¹³⁰⁾ 강창규의 최종 형량은 징역 6년이다.

방동화는 1919년 2월 4일 대석하여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형사 사건부』에 의하면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정구용은 1919년 2월 4일 권석으로 판결을 받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1923년 2월 13일 체포되어 2월 19일 목포 감옥에 입감되었다. 그리고 1923년 2월 20일 항소하여 대구복심법원으로 옮겨

126)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소장).

127) 안후상의 앞 논문(1995), 43쪽, 안후상의 앞 논문(1996), 166~167쪽.

128)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29)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30)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져 재심을 받았다. 1923년 6월 29일 재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대구로 이감되었다.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에 의하면 애초에 1924년 12월 28일이 만기였으나 1924년 8월 12일 형기 종료로 만기 방면되었다. 이로 보아 다시 감형되었으나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구용의 최종형량은 1년 1월 15일이다.

박주석은 1919년 2월 4일 대석 판결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었다.¹³¹⁾

김연일은 주모자로 1차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두 차례의 감형으로 최종 형량은 징역 4년 1월이었다. 강창규가 징역 6년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중에서 최종 형량이 가장 무겁다. 오랫동안 은신해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된 것 같고 또한 거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였던 강창규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가출옥

김연일은 3년 2개월 수감되어 있던 중 목포감옥 제주지소에서 가출옥하였다. 『김연일 가출옥 증표』¹³²⁾에 의하면 가출옥 기간은 1923년 6월 6일부터 1925년 4월 4일까지 1년 10개월간이다. 그러나 김연일은 가출옥 기간 중 다시 감형 받아 형기 종료일이 1924년 5월 4일이 됨으로써 최종 가출옥 기간은 11개월이다. 김연일은 가출옥하여 1923년 6월 10일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한 이래, 1924년 3월 1일까지 9개월간 총 12회를 출두하여 경찰관의 확인을 받았다.

강창규는 1928년 12월 12일 오후 4시 목포 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22일간의 가출옥이었다. 1929년 1월 3일이 형기 종료일이었다. 이는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었다.

131)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132) 『김연일 가출옥 증표』(1923. 6. 6. 목포감옥 제주지소, 제주불교사연구회 소장).

방동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가출옥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나, 가출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구용은 가출옥하지 않고 만기 방면되었다. 박주석도 가출옥하지 않았다. 박주석은 형 집행 중 감옥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출옥 상황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7> 주도세력의 가출옥 상황

구분 성명	가출옥 일자	가출옥 기간
김연일	1923년 6월 6일 ~ 1924년 5월 4일	11개월
강창규	1928년 12월 12일 ~ 1929년 1월 3일	22일
방동화	불명	불명
정구용	만기 방면	해당 없음
박주석	형 집행 중 옥사	해당 없음

김연일은 11개월간의 가출옥, 강창규는 만기를 앞두고 22일간 가출옥하였다.

4) 실제 복역 기간

감형과 가출옥 등을 감안하여 주도세력의 실제 복역기간을 정리하겠다. 1919년 2월 4일 첫 판결에서는 김연일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감옥에서 복역한 기간은 강창규가 제일 길다. 실제 복역기간은 『김연일 가출옥 증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정구용 재소자 신분 카드』 등의 새로운 자료 발굴로 밝힐 수 있었다.

감형과 가출옥 등을 감안하여 주도세력의 실제 복역 기간을 표로 그리

면 다음과 같다.

<표 8> 주도세력의 실제 복역 기간

구분 성명	판결확정 집행 일자	석방 일자	복역 기간	비고
김연일	1920년 4월 5일	1923년 6월 6일	3년 2개월	가출옥 (11개월)
강창규	1923년 1월 4일	1928년 12월 12 일	5년 11개월 8일	가출옥 (22일)
방동화	1919년 2월 4일	불명	불명	만기방면일 경우 3년
정구용	1923년 6월 29일	1924년 8월 13일	1년 1개월 15일	만기방면
박주석	1919년 2월 4일	1921년 7월 24일	2년 5개월 21일	형 집행 중 옥사

김연일은 1920년 4월 5일부터 1923년 6월 5일까지 목포분감에서 복역하였다. 1923년 6월 6일 가출옥하여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총 3년 2개월이다. 김연일에게 선고된 최종 형량은 4년 1월이었으나 11개월간은 가출옥 상태였다. 가출옥 기간 중 두 번째 감형으로 1924년 5월 4일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강창규는 5년 11개월 8일 동안 형을 살았다. 강창규는 처음 재판에서 8년형을 받아 10년형인 김연일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산 사람은 강창규이다. 이는 은신기간이 길었기 때문인 것 같고 또한 김연일이 법정사 주지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총지휘하였으나 거사 당일 선봉대장으로서 700여 참여자들을 이끌고 행동한 주역은 바로 강창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1월 4일 판결을 확정 받아 집행되었고¹³³⁾ 1928년 12월 12일에 가출옥으로 석방

133)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되었다. 이때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강창규 뿐이다. 모두 형 집행 종료로 석방된 상태였다.

방동화는 1919년 2월 4일부터 형을 살아 징역 3년형이면 1922년 2월 3일이 형기 종료일이다. 가출옥하지 않고 만기 석방되었다면 1922년 2월 3일까지 복역하였을 것이다.

정구용은 1년 1개월 15일 동안 복역하였다. 1923년 6월 29일부터 복역하여, 1924년 8월 13일 형기 종료로 만기 방면되었다.

박주석은 7년형에서 3년 6월로 감형되었으나 2년 6개월여 복역하던 중 1921년 7월 24일 목포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형이 종료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박주석은 1919년 2월 4일 판결 확정되어 수감되었고 2년 5개월 21일의 수감생활 끝에 사망하였다. 박주석의 사망은 일제 경찰의 고문 등의 가혹행위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사 당일 김연일·방동화를 비롯하여 강민수·정구용은 물론 선봉대장으로 거사를 이끌었던 강창규 등의 주도 세력 수뇌부들은 모두 피신하였다. 수뇌부 중에서 현장에서는 박주석과 장임호만 체포되었으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 경찰들은 분명히 이들에게 고문을 가했을 것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거사 조직의 모사(謀師)라는 지위로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모사의 지위였던 장임호도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과 유족이 없어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강춘근과 강수오는 재판도 있기 전에 사망하였다.¹³⁴⁾ 강수오는 체포하지 못한 선봉대장 강창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재판 전 조사과정에서 사망할 정도의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다.¹³⁵⁾ 그러므로 지휘부였던 박주석의 고문은 당연하다고

134) 옥사자는 모두 5명이다. 박주석·강수오·강춘근 외에 김두삼(1919년 8월 21일 광주 감옥 목포분감에서 옥사), 김봉화(1919년 12월 1일 대전감옥 옥사)도 옥사하였다.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135)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은 거사가 있던 후에 후손을 두지 못한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인석의 경우는 매를 많이 맞아서 허리가 굽은 채 살았고 후손이 없다. (오인석의 유족 김오순의 구술,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75세, 2004. 12. 4. 필자 채록). 김인수도 후손이 없다. (김인수의 유족 김인구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59세, 2004. 10. 23. 필자 채록).

할 수 있다.

주도세력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사람은 강창규이다. 김연일은 3년 2개월 복역하였으나 강창규는 5년 11개월 8일 동안 복역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 세력 중 김연일·강창규·방동화·정구용·박주석의 체포 시기와 형량 변화 그리고 가출옥과 실제 복역한 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1차 판결에서는 김연일이 10년형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형을 산 것은 거사 현장의 실제적 지휘자였던 강창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사 현장을 직접 이끌었던 강창규의 역할 때문이다.

2.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주도세력의 행적

1) 항일 활동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계속하여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서로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출옥 이후 활동 상황과 각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김연일은 1923년 가출옥 후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에 거주하였다.¹³⁶⁾ 1929년 취직되었고 1935년 강성돈과 결혼하였다. 유족들은 김연일이 집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던 인물로 증언하였다. 한번 나가면 1년이나 6개월씩 있다가 들어오곤 했으며 일본 경찰이 김연일을 찾는다고 수시로 집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김연일의 딸 김옥두와 손자 김갑출의 구술 증언을 통해 살펴보겠다.

136) 『김연일 가출옥 증표』(1923. 6. 6. 목포감옥 제주지소, 제주불교사연구회 소장).

자꾸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못 견디게 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집에 한번 씩 오시면 저쪽 뒷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들어가 숨어 지내다 가곤 했다. 우리 제일 큰 언니가 몰래 밥을 가져다 드리곤 했다. 한번은 아버지가 숨어있는 곳에 다녀오던 언니가 일본 사람에게 붙잡혔다. 일본놈이 총을 탁 들이대면서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했다. 우리 언니가 대단하게도 눈을 꼭 감고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 살았다.¹³⁷⁾

유족들은 김연일이 백두산과 만주에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김연일이 집에 돌아오면 구룡포 스님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백두산에도 자주 가셨다. 구룡포에 있는 스님하고 같이. 집에 오시면 찰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싼다고 그러더라. 밤에 먹고 밤에 있다 밤에 그냥 가시는데, 할아버지가 한 번 갔다 오면, 몇 분들이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 아마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일 거다. 백두산에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고 만주 쪽으로도 다녔다는 얘길 들었다.¹³⁸⁾

이외에도 김연일의 딸 김옥두도 아버지와 관련된 백두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유족 김갑출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집에 자주 왕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김연일이 집에 없을 때는 식량 등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영천이랑 대구 쪽에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운동했던 사람들, 우국지사 집안하고 자주 왕래가 있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안계시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다. 영천 쪽에서 찾아와서 식량도 줌 주고 가고 할아버지 안부도 전하고 가고 했다. 인수 삼촌 데리고 영천에 부호들 집에 가기도 해서 도움을 줌 받았다고 했다. 그분들 하고 자주 모이고, 집에도 그분들이 자주 오시고. 할아버지가 숨어 다니다가 일단 집에 오셨다하면 이쪽

137) 김연일의 딸 김옥두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68세, 2004. 10. 22. 필자 채록).

138)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구룡포 쪽에서도 오시고 했다. 할머니가 영천에 계시는 그분 하고 백범선생 얘기, 김구선생 얘기를 자주 하셨다.¹³⁹⁾

영천의 독립 운동가는 손병희라고 김연일의 딸 김옥두는 증언하였다.

너는 아버님이 독립지사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그리고 영천에 손병희라는 어른 얘기도 많이 했다. 어머니가 그분 말씀은 내 많이 했다. 아버님 하고 친구가 영천에 손병희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집에도 오시곤 했다.¹⁴⁰⁾

김연일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항일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항일 인물들과 교류를 지속하였고 계속해서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1935년 결혼한 김연일의 부인 강성돈이 큰 집 식구들과 면회를 다녀온 기억 등을 김갑출이 전해들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항일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연일은 1940년 5월 10일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입암리 관음사에서 입적하였다. 병에 걸려 집에 돌아온 이후 입적하였다고 한다.

김연일과 같은 영일군 출신인 정구용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제주도를 빠져나가 4년 4개월 동안 활동하다 1923년에 체포되었다. 정구용은 경상북도에서 활동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의 보경사 일주문 앞에는 '기미 3·1 독립의거 기념비'가 서 있다.¹⁴¹⁾ 이 비석에 정구용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정구용이 승려였던 점으로 미루어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도 사찰을 근거지로 하여 승려들과 함

139)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140) 김연일의 딸 김옥두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68세, 2004. 10. 22. 필자 채록).

141) 3·1 동지회 경북지부장 손인식이 1970년 3월 22일 세운 비석. 손인식은 광주에서 3·1 만세 운동에 가담하고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고, 해방 후 김구의 한독당 중앙위원을 지낸 사람이다. 1970년 경상북도 광복회 회장 자격으로 보경사 입구에 이 비석을 세웠다.

께 항일운동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경사는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사찰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는 '3·1 의거 기념비'가 있다. 1919년 3월 22일 보경사 서암에서 거사를 논의하고 청하 장날에 만세를 불렀다가 23명이 투옥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전리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보경사의 '기미 3·1 독립의거 기념비'는 정구용이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경상도 지역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정구용의 손자 정정석의 구술에서도 확인된다.

포항시에 한의원을 설립하셨다. 그러다가 1918년 어느날 하시던 한의원 문을 닫아버리고 독립운동을 하신다면서 집을 떠나셨고 7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수시로 일본 경찰들이 밤중에 들이닥쳐서 집의 벽장과 구석구석을 뒤지는 바람에 할머니께서는 나중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병이 생겼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을 하셨다.¹⁴²⁾

정구용은 독립운동을 위해 7년 동안 집을 떠나 있기도 하였다. 또한 손자 정정석과 정수복은 정구용이 임시정부의 김구와 함께 활동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정수복은 정구용이 김구의 자금 조달책으로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자금 조달을 맡아 하셨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김구 선생님이 잘 되면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실망을 했다.¹⁴³⁾

김구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크게 실망하였던 것을 유족들이 기억하고 있다. 손자 정정석도 정구용의 독립운동 관련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

142) 정구용의 손자 정정석의 구술 (경상북도 경산시, 67세, 2004. 11. 26. 필자 채록).

143) 정구용의 손녀 정수복의 구술 (경상북도 경산시, 63세, 2004. 11. 26. 필자 채록).

아버님(정찬문)한테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얘기를 들어왔다. 60년대 중반, 공화당 시절인데 아버님이 소주를 잡수시고 정부에다가 조부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화답도 오고 한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도 많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버님이 직접 소각하셨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는지 좀 후회하는 눈치였다.

8·15 이후 손인식 박사의 주선으로 부모님이 김구 주석을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49년 김구 주석 암살 후 상심이 역력했고, 하루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을 불태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마도 김구 주석을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1949년 김구 주석께서 돌아가신 후 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은 분들과 그 유족들이 본의 아니게 좌익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면, 그때 부친께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조부님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들을 소각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49년 4월경에 동생들과 나를 후생원에 맡겨두고 곧 돌아온다며 포항을 떠났다.¹⁴⁴⁾

정정석은 김구가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찍은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 정구용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경상도 지역의 독립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고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김구의 임시정부와도 연관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연일이 백두산과 만주를 드나들었다는 구술에 비추어볼 때 정구용과 김연일은 계속하여 함께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정구용은 1941년 포항읍 자택에서 61세로 입적하였다.

강창규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다. 5년 11개월 8일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서 사실 출옥 이후 활동 고리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28년 12월 12일 출옥 후 1931년 2월 25일 취적 신고를 하였다.¹⁴⁵⁾ 이때를 전후하여 제주도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의하면

144) 정구용의 손자 정정석의 구술 (경상북도 경산시, 67세, 2004. 11. 26. 필자 기록).

145) 『강창규의 제적 등본』(제주시).

강창규는 출옥 이후 목포성실회가 신병을 인수하고 여기에서 살게 되어있었다.¹⁴⁶⁾ 정구용의 경우 형이 출옥할 때 인수자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된다. 강창규는 출옥 이후 목포에서 살다가 후에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강창규는 다시 죽림사로 돌아가 1940년에 대선 법계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1943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동일리에 서산사(西山寺)를 창건하였다.¹⁴⁷⁾ 일제 시대에는 사찰을 창건하면 사찰령에 의해 총독부에 설립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서산사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여타 사찰과 달리 강창규와 서산사는 일제 당국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제 말기인 1943년 경 제주불교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위령제 혹은 무운장구 기원제를 지내거나 국방헌금을 헌납하기도 하는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나 서산사의 강창규는 이러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지가 여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창규는 해방되고 나서 1951년에 대한불교 제주교무원의 고문으로 선임되었다.¹⁴⁸⁾ 제주도의 사찰을 하나로 통할하는 단체였다. 이때에야 비로소 강창규는 제주불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활동하지만 그의 명성을 인정받아 고문의 역할을 한다. 강창규는 힘든 말년을 보내었다. 1963년경 대정읍 서산사 바로 앞 바닷가 언덕에서 입적하였다. 제자 성월이 강창규를 추모하여 세운 비석이 바다를 향해 서 있다.

방동화는 6년형을 받았으나 3년으로 감형되었으므로 가출옥 하지 않았다면 출옥은 1922년 2월 3일이다. 방동화는 1925년 범어사로 들어갔고 1927년부터 1932년까지 6년 동안 강원도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안거 수행하였다. 이후 제주도에 내려와 1936년부터 제주도 중문면 하원리 기림

146) “출옥 후의 보호자 주소 : 전라남도 목포부 죽동 96번지 재단법인 목포성실회(木浦成實會), 처자가 있으나 생계 곤란하고, 보호할 힘이 없음을 이유로 당분간 보호회에 수용 보호함.”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147) 「강창규 수행이력서」,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불교대학교 제주총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30쪽, 재수록.

148) 「대한불교제주교무원」, 「불교신문」(1951. 12. 11.).

사 포교소 원만사에서 활동하였다.¹⁴⁹⁾ 강창규가 일제 시대 동안 일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방동화는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 일체하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1930년대 말 일제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 시기 제주도 내 각 불교 포교당에서도 국방헌금을 헌납하였는데, 방동화도 기림사포교소 원만암의 대표로 헌금을 낸 기록이 있다.¹⁵⁰⁾ 1939년 제주불교연맹이 결성될 때에도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¹⁵¹⁾ 제주불교연맹은 근대 제주불교를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킨 제주불교의 통합기구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1945년 12월 방동화는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참석하여 조선불교 제주교구 교무원장으로 피선되었다.¹⁵²⁾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는 1945년 12월 제주도 전역의 사찰에서 참가하여 그간의 친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동참하며 사찰을 정화하고 대중불교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모아 제주교구 교무원을 탄생시킨 대회였다.¹⁵³⁾ 1951년에는 대한불교 제주교무원의 교무회의장으로도 피선되어¹⁵⁴⁾ 교무원 강창규와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 1970년 83세로 중문면 회수리에서 입적하였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김연일·정구용과 같이 출옥 이후에도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강창규처럼 일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항일의지를 꺾지 않고 일제 시대를 살아간 인물도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해 나갔다. 이

-
- 149) 「방동화 수행이력서」,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28~229쪽, 재수록, 「방동화 승적첩」(1940, 방진주 소장).
 150) 「제주도내 각 포교당의 국방헌금」, 『불교시보』제30호(1938. 1. 1.).
 151)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제47호(1939. 6. 1.).
 152) 『법계』(1945,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73쪽, 재수록.
 153) 김광식,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의 개최」, 『죽비소리』제15호(보리도량, 1999. 4.) ~ 제21호(보리도량, 1999. 10.) 참고.
 154) 「대한불교제주교무원」, 『불교신문』(1951. 12. 11.).

는 주도세력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관찰되었다.¹⁵⁵⁾ 따라서 법정사 항일운동이 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의 활동 연관성은 가정 생활만이 아니라 항일활동 또한 이후 지속적으로 함께 하였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도세력의 인척 관계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연일은 강창규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 사이에 딸을 하나 두었는데 김은옥이다. 김은옥은 1924년생이지만 1935년에야 강성돈과 결혼한 김연일이 호적에 입적시켰다.¹⁵⁶⁾ 김연일도 1929년에야 취적되었기 때문에 부인인 강창규의 딸을 비롯하여 김은옥의 출생도 호적에 기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강창규의 딸은 현재 전혀 추적할 수 없었다. 김은옥은 김연일의 형이었던 김기덕이 양육하기도 하였던 정황 등으로 보아 김은옥의 어머니인 강창규의 딸은 아마 1935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인수는 김연일의 조카이다. 김연일의 아버지 김대근은 김기덕과 김연일(호적명은 김기인) 두 아들을 두었다. 김기덕은 다시 김재수와 김인수를 두었다. 즉 김인수는 김연일의 형의 둘째 아들이다.¹⁵⁷⁾ 김인수는 정구용의 질녀와 결혼하였다. 정구용의 형인 정원용의 딸 정모계와 1935년 7월 5일 혼인하였다. 둘 사이에는 후손이 없다. 이는 고문의 후유증인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김인수의 형 김재수는 1929년 최재월과 결혼하였는데, 기림사 말사인 고석암의 최스님이 최재월의 가족이다. 이 최스님도 김연일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구룡포 스님들과 함께 집에 드나들었던 독립운동가 중의 한사

155) 김창민은 마을 조사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이 상호간 혼인을 통한 권당관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무석과 송을생은 사촌 동서간이었으며, 김무석의 4촌 처남이 최신일과 사돈간이었다. 또 송을생의 처남이 최신일의 사돈이었다.”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1.),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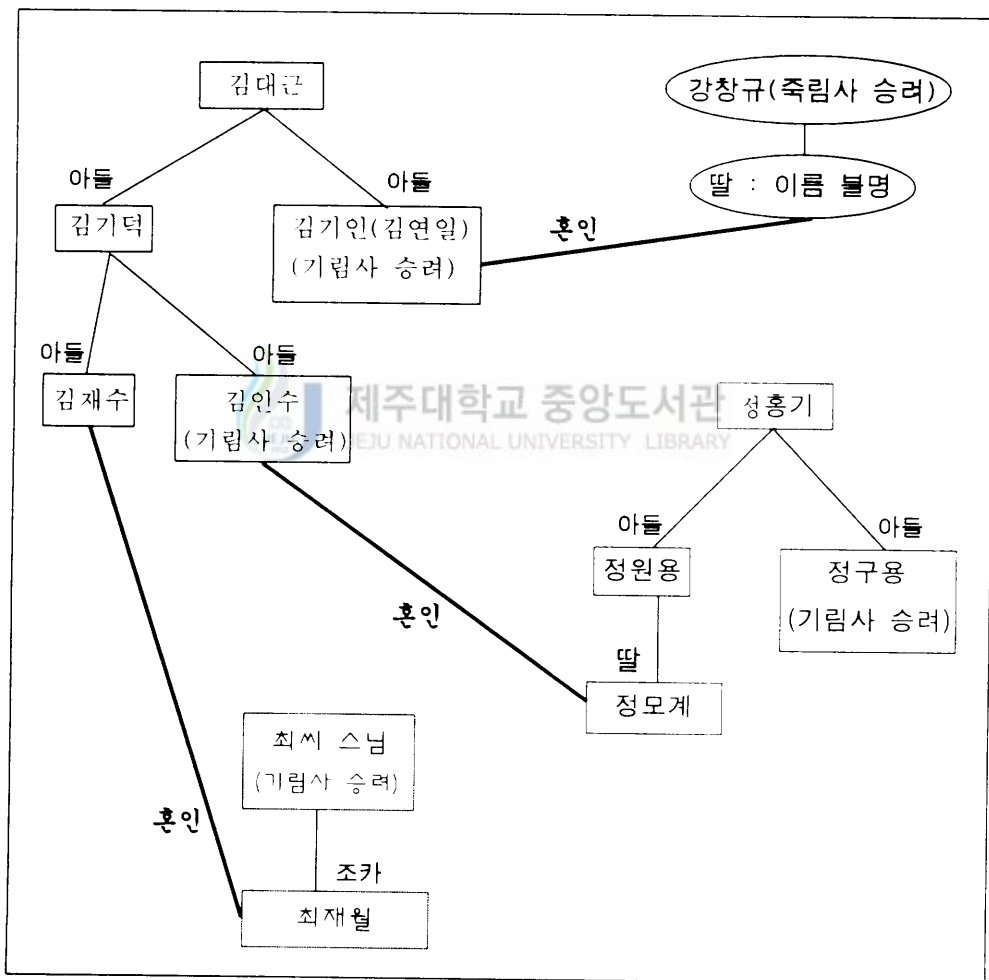
156) 『김연일의 제적부』(포항시).

157) 『김연일의 제적부』(포항시).

람으로 유족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최스님의 후손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어서 최스님과 김연일과의 인물간 관계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인척 관계를 형성하여 나갔다. 이는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로서 어찌면 당연한 인간관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도세력의 인척 관계 형성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주도세력의 인척관계 형성



이러한 인척 관계 형성은 주도세력들이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항일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연일의 입암리 관음사를 근거지로 하여 독립운동 인사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서로 생계를 돌봐주는 사이를 지속하였다는 구술 증언¹⁵⁸⁾으로 본다면 이들의 인간관계가 이후의 활동까지에도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기 전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법정사 창건과 관련된 강창규·김석윤·방동화의 인연관계, 김연일과 육지부 승려들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법정사와의 관계에서부터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의 가족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를 종합하여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주도세력의 인물간 관계

주도 인물	내 용
김연일	방동화와 기림사 인연으로 제주도로 이주
	강창규의 딸과 혼인하여 김은옥을 낳음
	조카 김인수는 정구용의 조카 정모계와 혼인
	조카 김재수는 최스님의 딸 최재월과 혼인
	경북 영일군 출신
정구용	기림사 승려로 김연일과 제주도 행
	형의 딸 정모계와 김인수 혼인 시킴
	경북 영일군 출신
김인수	김연일의 형인 김기덕의 둘째 아들
	정구용의 조카 정모계와 혼인
	경북 영일군 출신

158)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필자 채록).

강창규	딸을 김연일에게 혼인시킴
	동생 강수오 : 피체 후 재판 전 옥사
	재적 사찰 : 위봉사
최태유	위봉사 성산포 포교당 창건
방동화	기림사 출가
	박주석을 찾아가 법정사로 초빙
박주석	경북 안동 출신
	방동화의 초빙으로 법정사에 거주

독립운동을 하고자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던 이들 주도세력들은 출옥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인간관계로 연계된 활동을 이어나갔다.

2) 승려 활동

기존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는 주도세력의 종교 성향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자는 『승적첩』과 『이력서』 그리고 유족들의 구술 증언 자료 등을 통해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에도 승려였고 이후에도 승려로 종교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당시 승려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일반 참여자 중에도 후에 승려로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¹⁵⁹⁾ 주도세력들의 승려 생활을 살펴보고 이들

159) 안후상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 중 김연일과 정구용·강민수 만이 불교도이며 이들 외에 승려라고 표기된 그 어떤 자료도 없다. 다만 당시 관련자의 후손 몇몇이 선대들이 승려였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였다.(안후상의 앞 논문(1995), 44쪽, 안후상의 앞 논문(1996), 168쪽). 이는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만을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본 연구자는 『이력서』 『교적부』 『승적첩』 등의 자료를 통해 이들 외에도 강창규·방동화 등 승려들이 여러 명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언제부터 승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후에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하였던 최태유·오인석 등 다수가 있다.

의 종교 성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법정사 거주 승려들은 출옥 이후에도 승려 생활을 이어나간다. 우선 김연일은 출옥 이후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입암리에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그는 만주 지역을 드나들며 항일 활동을 계속하였고 경상도 지역 항일인사들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입암리 마을로부터 외떨어진 산중에 사찰을 창건¹⁶⁰⁾하였다. 김연일의 딸 김옥두는 김연일이 항일 활동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은신을 위해 사찰을 산중에 지은 것으로 증언하였다. 입암리 관음사에 살면서도 아버지 김연일의 활동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답사 결과 입암리 관음사지는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좁은 도로와 건물의 흔적 그리고 우물 등이 남아있었다. 산 정상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숨어살기에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도구리 마산리 등으로 도주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였다. 때문에 입암리 관음사는 계속해서 김연일과 관련된 항일운동 인사들의 모임처가 되기도 하였다. 입암리 관음사는 일제 경찰에 의해 불태워졌으나 김연일의 사후 그의 부인 강성돈은 계속 사찰을 운영하여 강창규·방동화를 비롯한 법정사 관련 인물은 물론 경상도 지역의 독립운동 인사들의 모임처 역할을 지속하였다.

강창규는 앞의 항일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옥 후 죽림사에서 생활하다가 제주도에 돌아와 1943년 남제주군 대정면 동일리에 서산사를 창건하였으나 총독부에 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다. 1951년에야 대한불교제주교무원에서 제주불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방동화도 앞에서 살핀 것처럼 출옥 이후 범어사에 들어가 살았고, 1932년경에 제주도에 내려왔다. 중문면 하원리 법화사와 중문면 하원리 기림사 포교소 원만사에서 활동하였다. 방동화는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는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자 1946년 조선불교 제주교구 교무원장으로 추대됨으로서 일제 시대의 핍박으로

160)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바우꼴 절'이라고 기억되고 있다. 홍해읍 마산리 주민 이춘우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홍해읍 마산리, 67세, 2004. 10. 23. 필자 채록).

부터 풀려나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이 일제 시대를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부연하지 않아도 짐작 가능한 일이다.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된 박만하도 관음사 활동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불교사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듯이, 김석윤도 후에 관음사에서 생활하지만 제주불교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강창규와 방동화도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제주불교의 주된 흐름에서 소외된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인수는 감옥에서 폐결핵에 걸려 출옥한 이후 절에서 생활하며 불상도 만들고 탕화도 그렸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의 화룡사, 포항시 동해면 중산리의 일출암 그리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의 무학사를 창건하였다. 1935년 정구용의 질녀와 결혼하고 1939년 41세에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사망하였다.

정구용은 경상북도로 돌아가 보경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일주문 앞에 세워져 있는 '기미 3·1 독립의거 기념비'에서 정구용의 경상북도 지역 활동을 알 수 있다.

최태유는 후에 최진수로 개명하여 활동하였다. 1937년 위봉사 제주도 성산포 포교당을 창건하였다.¹⁶¹⁾ 1945년 12월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신흥사 대표로 이름이 올라있다. 남제주군 고성리 남안사도 창건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은 아니었고 단순 참여자였지만 후에 승려활동을 하는 오인석이 있다. 오인석은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인수사를 대표하여 출석하였다.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는 제주도 전역의 사찰에서 참가하여 제주교구 교무원을 탄생시킨 대회였다. 오인석은 김석윤과 함께 교무회원으로서 교무회의 고문을 맡았다.¹⁶²⁾ 오인석의 유족 김오순의 증언¹⁶³⁾에 의하면 남제주군 대평리에 사찰을 지었다. 제주 4·3사건

161) 「성산포교당 불봉식」 『불교시보』 제25호(1937. 8. 1.),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18쪽, 재수록.

162) 「법계」(1945,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74쪽, 재수록.

으로 남제주군 상예리·감산리 군산 지경·하예리 등지로 사찰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이상 주도세력들의 승려활동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항일 운동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승려로 활동하다 생을 마감하였다.

다음은 주도세력의 종교 성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제 시대 제주불교의 특징은 오늘날의 불교 특징과 비교하여 불 때 민간신앙의 측면과 흡사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근대에 들어 제주불교가 틀을 갖추고 나서 사찰의 확장과 아울러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바로 민간신앙의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제주불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종교 성향은 어떠하였을까. 김연일이 불무황제를 칭하였다든지 선도교의 교지를 믿었다든지 하는 점에서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하였던 신흥종교의 특성도 발견되는 게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들 법정사 승려들이 선도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도교 등의 신흥 민족종교들 또한 불교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미륵불의 강생을 주장한다든지 금산사에서 활동을 개시한다든지 하는 점에서 보면 불교의 또 다른 한 계파인 듯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18년 제주불교계는 당시 흐름의 특징대로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흐름의 특징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도세력들이 신흥종교의 어느 특정 교파를 따라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륵불의 불교적 요소를 강하게 지닌 선도교에 경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정사의 종교 성향 또한 시대의 큰 흐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다만 이들 법정사 승려들은 출옥 이후에 대부분 불교 승려로서 활동을 이어나간다. 또한 일반 참여자들 가운데 법정사 항일운

163) 오인석의 유족 김오순의 구술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75세, 2004. 12. 4. 필자 채록).

동 당시는 승려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 중에 운동 이후에는 승려로 활동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등의 불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주시해보면 주도세력들이 법정사에 거주하면서 불교를 신앙하였던 것은 명백하다 하겠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 민족의 현실을 고민하던 초창기 근대 제주불교 선두주자로서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법정사 거주 승려들은 출옥 이후 각기 사찰을 창건하여 승려활동을 지속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주도세력들이 신흥종교에 경도된 듯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이들의 승려생활을 통해 분명히 불교를 신앙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어 더 이상 종교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주도세력의 체포시기와 형량 그리고 실제 복역기간 등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김연일과 강창규를 비롯한 주도세력 대부분은 현장에서 피신하였다가 후에 체포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실제 복역기간은 법률 개정과 가출옥 등을 통해 처음 구형된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 받은 인물도 있었음을 보았다. 또한 주도세력들의 출옥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행적을 조사 정리하여 승려 활동을 지속하면서 항일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찾아내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주도세력을 살핌으로써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의 승려들이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일으킨 항일운동이었음을 규명하였다.

VI. 결 론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비롯한 강창규·방동화 등의 승려들이 인근 지역 주민 700여명과 함께 일으킨 항일운동이었다. 본 연구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주도세력을 주목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우선 법정사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성에서 II장에서는 법정사의 창건과 성격에 대해 다루었다. 법정사는 1911년 안봉려관이 한라산 남쪽 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해 창건하였다. 제주의병항쟁의 의병장 김석운 등의 도움이 있었다. 법정사는 창건 당시부터 김석운을 비롯한 강창규 등 항일의식을 가진 인사들의 집합처였다. 강창규·김석운·방동화는 승려로 출가할 때부터 사상적 교류를 나누던 사이로 이들의 항일의식이 법정사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음을 살폈다.

III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배경을 주도세력간의 인간관계와 이들의 항일의식을 통해 규명하였다. 주도세력들은 법정사 이전부터 항일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제주도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국권회복을 거사 목적으로 표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음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들은 김연일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정사에 거주하던 강민수·정구용·김인수·김용충·장임호 등의 기림사 승려들은 물론이고 법정사에 거주하지 않던 박주석도 경상북도 안동 사람으로서 김연일과의 인연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함을 밝혔다. 새롭게 발굴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등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할 수 없었던 시대별로 달라지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시각도 비교해 놓았다. 우선 참여주민의 숫자가 기존 연구와 달리 700여명이었음을 새로이 밝혔다. 또한 거사의 주체와 목적에 대해서 승려들이 주민들과 함께 계획한 독립운동이었다는 1920년대 기록에서부터 1938년에 이르러서는 사교도를 규합하여 민중을 선동한 사건으로 왜곡하는 일제의 의도도 밝혀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법정사에 모이기 이전부터 항일의식을 가진 인사들로 독립운동의 목적 때문에 제주도에 왔다는 점을 살펴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주목하였다.

IV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주도세력들은 6개월 전부터 거사를 준비하였으며 부서 조직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자를 이끌며 거사를 실행하였다. 조직은 김연일 중심의 지휘부와 현장의 실제 지휘자인 강창규를 선봉대장으로 하는 행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주민과 함께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방화하고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으로 국권회복이라는 거사 목적을 실행하다가 서귀포 경찰관주재소 순사대의 총격으로 천제연 부근에서 해산되었다.

V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결과를 주도세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도세력들은 대부분 피신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다. 김연일은 1년 6개월 후에 강창규는 4년 3개월 후 그리고 정구용은 4년 4개월 후에 체포되었다. 제1심 판결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김연일은 감형과 가출옥 등으로 실제로는 3년 2개월 복역하였다. 복역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강창규로 5년 11개월 8일을 복역하였다. 형을 마친 후에도 계속된 주도세력의 항일 활동도 살펴보았다. 김연일은 독립지사들과 꾸준히 연계되어 있었고 백두산과 만주 등지를 왕래하며 활동하였다. 정구용은 경상북도 보경사를 근거지로 항일활동을 지속하였고 김구 등과 교분을 이어갔다. 승려로서 종교 활동도 지속하였다. 김연일은 영일군에 관음사를 창건하고 강창규는 서산사를 방동화는 원만사, 김인수는 무학사 등을 창건하였으며 정구용은 보경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주도세력들의 출옥 이후 승려 활동은 법정사의 성격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 법정사 항일운동의 종교 성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게 되었다.

본 연구로 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 승려들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실행한 항일운동이었음이 규명되었다. 6개월의 준비기간과 조직체 구성으로 참여자를 역할 분담시켜 조직적인 거사를 보여주었다. 법정사는 창건 당시부터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의 집합

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은 김석윤·강창규·방동화의 항일의식에 동조하는 육지부의 김연일과 인간관계로 엮여있는 인물들이었다. 거사의 총지휘자는 김연일이었고 현장의 실제 지휘자는 강창규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이들 주도세력들은 항일 활동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승려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로써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거사였음을 밝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한정된 자료에 의해 논란의 매듭을 짓지 못했던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거사 계획단계부터 참여한 주도세력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지역에 끼친 영향과 700명 지역주민에 대한 고찰 등이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1. 자 료

1) 문헌 자료

-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 『교적부(教籍簿)』(1947, 관음사 포교소,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 『김연일 가출옥 증표』(1923. 6. 6. 목포감옥 제주지소, 제주불교사연구회 소장).
- 『방동화 승적첩』(1940, 방진주 소장).
- 『법계』(1945,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소장).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영인판,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전국지리지』2, 1983).
-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1924, 대구교도소, 국가기록원 소장).
-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조선총독부 관보 중 제주록』(제주도, 1995).
-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 『회명문집』(권태연 편역, 정동원, 1991).
-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본)영인판, (1934.)
- 김상헌, 『남사록(南槎錄)』(김희동 역, 영가문화사, 1992).
-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亡兄石惺道人行錄)』(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김석익, 『심재집(心齋集)』영인본, (제주향교 행문회, 1990).
-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1996).
- 김정, 『충암집(沖菴集)』(김종섭역, 『국역 충암집』, 충암문간공종중(沖菴文簡公宗中), 1998)
-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총서 조선독립운동』제1권 분책: 민족주의운동편, 원서방 (동경), 1967.
- 김형식, 『혁암산고(革菴散稿)』(오문복 역, 북제주문화원, 2004).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자료집 :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상·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1.
- 민족사, 『한국 근현대 불교 자료 전집』영인본, (1-69), 1996.
-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상·하, 선우도량출판부, 1999.
- 오이화, 『조사(弔詞)』(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영인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편집,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 이한진, 『매계선생문집(梅溪先生文集)』(김영길 역, 제주문화, 1998).
- 이형상, 『남환박물관(南宦博物)』(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 장의순, 『초의선집』(경서원, 1985).
- 제주도, 『제주사자료총서』(I), 제주도, 1998.

2) 구술 자료

(채록자 한글순)

- 강인숙의 구술 (전라남도 해남군, 68세, 2004. 11. 17. 채록).
- 강일문의 구술 (제주시 용담동, 69세, 2005. 4. 12. 채록).
- 김갑출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50세, 2004. 10. 22. 채록).
- 김오순의 구술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75세, 2004. 12. 4. 채록).
- 김옥두의 구술 (경상남도 울산시, 68세, 2004. 10. 22. 채록).
- 김인구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59세, 2004. 10. 23. 채록).
- 이춘우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67세, 2004. 10. 23. 채록).
- 김환생의 구술 (경상남도 합천군, 71세, 2004. 11. 27. 채록).
- 방진주의 구술 (서귀포시 중문동, 52세, 2004. 9. 24. 채록).
- 송도성의 구술 (제주시 이도2동, 63세, 2003. 10. 14. 채록).
-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채록).
- 정수복의 구술 (경북 경산시, 63세, 2004. 11. 26. 채록).
- 정정석의 구술 (경북 경산시, 67세, 2004. 11. 26. 채록).
- 혜관의 구술 (서귀포시 보목동, 82세, 1998. 1. 14. 채록).

3) 신문자료

- 「제주도 아미산 봉령암의 기적」 『매일신보』, 1918. 3월 2일, 3월 3일.
「불무황제 체포」 『매일신보』, 1920. 4. 12.
「제주보통생의 독립만세 호창 : 4월 8일에」 『매일신보』, 1920. 5. 31.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 1923. 2. 20.
「제주학생단 원족」 『매일신보』, 1923. 10. 12.
「구좌보교생 견학」 『매일신보』, 1924. 5. 16.
「성산포교당 불봉식」 『불교시보』제25호, 1937. 8. 1.
「제주도내 각 포교당의 국방헌금」 『불교시보』제30호, 1938. 1. 1.
「한라산을 근거지로 총후에 암약한 사교」 『매일신보』, 1938. 8. 13.
「제주도 제주선원 낙성식 및 기념강연」 『불교시보』제39호, 1938. 10. 1.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제47호, 1939. 6. 1.
「대한불교 제주교무원」 『불교신문』, 1951. 12. 11.

2. 연구 논저

1) 저 서

- 강문호·문태선, 『제주 선교 7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8.
강석주·박경훈, 『불교 근세백년』, 민족사, 2002.
강용삼·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국립제주박물관,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2003.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 지방사료 창 열기』, 천세, 2003.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00.
국사편찬위원회,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2004.
김경집, 『한국 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김광식,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김광식, 『한국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김동전 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 김태능 저, 양성종 역, 『제주도약사』, 신간사(동경), 1988.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박용후, 『제주도지(濟州島誌)』, 백영사, 1976.
- 변승규, 『제주도약사』, 제주문화, 1992.
-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 정광호, 『근대 한일 불교 관계사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 정광호, 『한국불교 최근백년사 편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9.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1998.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활동』, 국학자료원, 2000.
-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 논 문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2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김광식, 「제주도 불교청년단 결성대회의 개최」 『죽비소리』 제14호, 보리도량, 1999. 3.
- 김광식,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의 개최」 『죽비소리』 제15호, 보리도량, 1999. 4.~ 제21호, 보리도량, 1999. 10.
- 김광식, 「해방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 연구』1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 김동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국립 제주박물관, 2004.
-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 『광복50주년 기념 제주지방 독립운동사 학술회의 자료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10. 27.
-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동전, 「제주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 김봉옥, 「제주 법정사 항쟁 재조명」 『광복50주년 기념 제주지방 독립운동사 학술

- 회의 자료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10. 27.
- 김정인, 「법정사 항일 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1. ;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제22집, 2002. 12.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1. ;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제22집, 2002. 12.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통권99호, 제주도, 1996. 1.
-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1. ;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제22집, 2002. 12.
-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 연구」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 『종교학연구』15집, 서울대학교종교학회, 1996.
-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 정금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 조성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1. ;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제22집, 2002. 12.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4) 기타 자료

- 구산인(龜山人), 「영주기행」 『불교』제4호, 1924. 1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제9권 : '90·'91 건국훈장서훈자, 독립유공자공훈록
편찬위원회, 1991.

백양환, 「한라산 순례기(속)」 『불교』제71호, 1930. 5.

진원일,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지』제39집, 1969. 7.

진원일, 「안봉려관 스님」 『제주도지』제42집, 1969. 1.

진원일, 「주장자 세 번 치니, 오이화 스님」 『제주도지』제54집, 1972. 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Beobju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1918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Jeju Beobjungsa broke out at Dosoongi in Jeju on December 7 in 1918. The Anti-Japanese movement was staged by some Buddhist monks such as Kim Yeon-il, Kang Chang-gyu and Bang Dong-hwa and about 700 local folks to the purpose of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Jeju Beobjungsa movement by tracing not only its preparation an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for the movement but also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leading power all throughout the movement. Beobjungsa had been a staging place for Buddhist monks with Anti-Japanese awareness since it was founded in 1911. Ever since, those monks had inculcated local folks with Anti-Japanese ideology, claimed to stand for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and induced the participation of those local people through Buddhist services for about 8 years.

Japan, however, tried to diminish and distort the meaning of the resistance movement into "a rabble-rousing instigated by around 300 to 400 pretended devotees." Seeing the fact that Beobjungsa Buddhist monks induced about 700 local folks' participa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a careful prearranged plan, we can easily perceive

the Japanese intention to diminish the meaning of this Anti-Japanese movement.

Roles and duties are assigned to departments and officers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Jeju Beobjungsa like in the organization of the loyal troops at the end of Chosun. The organization of the resistant movement consisted of the commanding department and the operation department. Kim Yeon-il was in charge of the commanding department and Kang Chang-gyu, the operation department. On the very day of the movement launch, Kang Chang-gyu took the role of commanding the movement and Bugjeongsa Buddhist monks led the local people. They showed their strong will against Japan by beating Japanese people and setting police checkpoints on fire.

Most of the prime movers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were not arrested on the spot. Without the prime movers like Kim Yeon-il arrested, some participants received the verdict of guilty with the first trial. In view of the total degree of penalty, the punishment was heavier than that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All things considered such as commutation and release on parole, Kim Chang-gyu, a field commander, served the longest term of service.

The prime movers of the Jeju Beobjungsa Anti-Japanese Movement continued to stage the Anti-Japanese Movement and do religious activities since they had been released from the prison. Kim Yeon-il and Jung Gu-yong continued the movement in the Kyungsang province and Kang Chang-gyu and Bang Dong-hwa founded a temple to continue the movement. They also formed in-law relationship one another through marriage in order to continue the resistance movement.

The newly discovered documentary records made this study possible.

This study is also based on preserved documents in National Registration Agency, words of mouth from the bereaved families, and materials in their possession.

